

碩士學位 請求論文

國民學生의 學院課外學習에 대한  
學父母 認識 調查研究

指導教授 李 淳 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景 植

1995년 2月 日

國民學生的 學院課外學習에 대한  
學父母 認識 調查研究

指導教授 李 淳 珩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金 景 植



金景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高明奎

審査委員

李 鐵 錫

審査委員

李 淳 珩

抄錄

## 國民學生의 學院課外學習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調查研究

金 景 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李 淳 珩

본 연구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학원과의 학습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의있는 일이라 본다. 이러한 일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원과의 학습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리라 생각하면서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보완적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했다.

- 1)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2)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3)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 4)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과의 학습에 대한 문제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제주도내 13개 국민학교 학생의 어머니 930명을 시, 읍소재지, 농어촌으로 나누어 유층무선표집하였다. 199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질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표집의 크기는 882명이다. 그 결과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문항별 반응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낸 후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조사 분석된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학원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교육을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

장보다는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경제적 부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도구적 교육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대학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미래사회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아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지적인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도덕적 성장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반응이 일관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성적을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학교교육이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거나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자녀의 학원과의 학습을 요구하는 잠재적인 필요로 작용하고 있다. 90%이상의 학부모들이 학원과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기본적인 학습능력 배양, 잠재 능력과 특기신장, 정서함양 등과 같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 제주도 국민학생 전체의 83.3%가 주산, 속셈, 피아노, 미술 등의 학원과의 학습을 받고 있으며, 국민학교 1학년 이전에 81.7%가 예능계열 중심의 학원과의 학습을 시작하여 현재 1인당 평균 1.6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원과의 학습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계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학습은 일반화, 보편화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이제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학습은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계층적 위화감 또는 교육적인 소모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교육적인 발전이라는 전향적 시각만이 국민학생의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원과의 학습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성적 향상과 같은 단순한 도움만이 아니라 자신감, 잠재능력의 개발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반응하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경비 혹은 학습시간의 부담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의 부족한 면을 보완·보충해야 한다고 대부분이 응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 2의 학교로서 학원과의 학습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目 次

I. 緒論 .....	1
1. 研究의 必要 및 目的 .....	1
2. 研究 問題 .....	3
3. 研究의 制限點 .....	4
II. 理論的 背景 .....	6
1. 學院教育의 性格 .....	6
2. 學院教育의 現況 .....	9
3. 學校教育과 學院教育의 關係 .....	14
4. 國民學生의 學院課外學習 .....	17
5. 學院課外學習의 課題 .....	20
III. 研究의 方法 .....	24
1. 研究對象 및 標集 .....	24
2. 研究 道具 .....	25
3. 資料 處理 및 分析 .....	26
IV. 結果 및 解釋 .....	27
1. 教育에 대한 學父母의 일반적인 認識 .....	27
2. 學校教育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	38
3. 學院課外學習 實際 및 그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	47
4. 學院課外學習 效果와 問題에 대한 學父母 認識 .....	72
IV. 要約 및 結論 .....	82
1. 要約 .....	82
2. 結論 .....	89
參 考 文 獻 .....	92
英 文 抄 錄 .....	95
附 錄 .....	98

# 表 目 次

<표 II-1> 연도별 학원수 변화추이 .....	10
<표 II-2> 연도별 국민학교 재학생의 학원수강자수 변화 .....	11
<표 II-3> 연도별 제주도 국민학생 변화추이 .....	12
<표 II-4> 연도별 학원교육 이수자 수와 학원수 변화 추이 .....	12
<표 II-5> 연도별 계열별 학원수의 변화 추이 .....	13
<표 III-1> 질문지의 배부, 회수율 .....	24
<표 III-2> 설문지의 내용 .....	25
<표 IV-1>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인간상 .....	28
<표 IV-2>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	29
<표 IV-3>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결정적 요인에 대한 인식 .....	31
<표 IV-4> 교육이 사회적 지위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33
<표 IV-5>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34
<표 IV-6>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학력 수준 .....	35
<표 IV-7> 학력이 계속 높아져야 하는 이유 .....	37
<표 IV-8> 자녀의 학업 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 정도 .....	39
<표 IV-9> 자녀의 학업성적에 과민한 이유 .....	40
<표 IV-10> 특기 신장에 중요하게 작용요인에 대한 인식 .....	41
<표 IV-11> 학교의 교육중점에 대한 인식 .....	43
<표 IV-12> 학교교육의 개선에 대한 인식 .....	45
<표 IV-13> 학교교육의 불만족스러운 분야에 대한 인식 .....	46
<표 IV-14> 국민학생에게 학원과외학습의 필요에 대한 인식 .....	48
<표 IV-15> 학원과외학습시키는 목적 .....	49
<표 IV-16> 국민학생들의 학원과외 수강 유무 .....	52
<표 IV-17> 학원과외과목별 학원수강자 비율 .....	53
<표 IV-18> 지역별 학원과외 수강자 수 .....	53
<표 IV-19> 학년별 학원과외 수강자 수 .....	55
<표 IV-20>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외 수강수 비교 .....	56
<표 IV-21> 자녀에게 학원과외학습 최초로 시킨 시기 .....	58
<표 IV-22> 최초로 수강한 학원 계열 .....	60
<표 IV-23> 학원과외과목 선택자 .....	61
<표 IV-24> 1일 평균 학원과외 수강시간 .....	63

<표 IV-25> 1인당 연간 학원과외학습비 소요액 .....	65
<표 IV-26> 지역별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외학습비 추정액 .....	66
<표 IV-27> 어머니 학력별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외학습비 추정액 .....	66
<표 IV-28>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67
<표 IV-29> 학원과외학습비의 가계 부담에 대한 인식 .....	69
<표 IV-30> 자녀의 학원과외수업 지속여부에 대한 인식 .....	70
<표 IV-31> 학원과외학습 재개여부에 대한 인식 .....	71
<표 IV-32>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의 차이점 .....	73
<표 IV-33> 학교와 학원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	75
<표 IV-34> 교사와 학원강사 자질 비교 .....	76
<표 IV-35> 학원과외수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	77
<표 IV-36> 학원과외학습에 따른 자녀교육의 애로점에 대한 인식 .....	79
<표 IV-37> 바람직한 학원과외학습 방향에 대한 인식 .....	81

# I. 緒論

## 1. 研究의 必要 및 目的

1961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 719호)이 제정·공포된 이후 오늘까지 학원 수는 93배, 학원과외학습 수강자 수는 142배로 현저한 양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sup>1)</sup>. 특히 현재 국민학생 중 서울 89.0%<sup>2)</sup>, 제주도 83.3%<sup>3)</sup>가 학원과외학습을 수강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서 앞으로도 학원과외학습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이 학원과외학습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학교교육은 그 자체가 지닌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아동 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적성을 적절하게 개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학원과외학습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상보적인 기능으로서 학교교육을 보완·보충해 주는 일 이외에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면서 교육기회 불균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기 때문이다(남정걸 외, 1993).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학교로 인식하여 학교교육이 곧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생각하여 왔다. 근래에 들어와서 시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식, 정보, 과학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학교교육만으로는 국민 모두의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인 학원과외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학원과외학습은 교육의 민주화,

1) 1961년 학원수는 521개소 학원수강자 수는 21,517명이고, 1994년의 학원수는 48,476개소 학원수강자 수는 3,065,918명(전국기준). 문교부, 문교통계연보(1961);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94).

2) 서울의 국민학생 학원수강 비율에 관한 자료: 한국교육신문, "영어-예.체능 조기교육 걸 돌아", 1994년 4월 13일.

3) 제주도의 국민학생 학원수강 비율에 관한 자료: 본 연구보고서 p. 52.



기계·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선발 사회로서의 진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김종서, 1991).

그러나 이러한 학원과외학습은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자 좀 더 나은 학교입학을 위한 경쟁도구로 전락되는 상황이 되면서 학원과외학습 의미가 변질되고 심각한 교육내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즉 학교외과외수업이 과열되자 학교교육의 불신풜조가 만연되어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초래되었고, 과외비용이 과다 지출로 인하여 가정경제에 어려움과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신세호 외, 1991).

만일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던지 어떤 교육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에, 공교육비의 악화 현상 부채질, 교육자원의 비효율화, 학교교육의 경시풍토 조성, 학원부교재 산업의 양산 및 변태 운영, 인간교육을 경시하는 교육의 공동화 조장 등 교육에 대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본다(한국교육신문, 1994년 4월 13일).

이와 관련하여 10여년 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교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원교육연구는 학부모의 교육의식이나 교육체제를 교육의 전체 구조 속에서 분석하지 못하여 학원과외학습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학원과외학습은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지식을 보충하거나 확장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원과외학습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서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다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개발·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교육적인 시각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학생의 과외활동은 학부모의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학원과외학습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국민학생의 학업결손을 보완·보충하는 측면 못지않게 예·체능 등의 기능 신장과 잠재능력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원과외학습의 실제 및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

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의있는 일이라 본다. 이러한 일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원과의학습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리라 생각하면서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보완적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다
- 2) 자녀의 학원교육 실체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학원과의학습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3) 학원과의학습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다.

## 2. 研究 問題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국민학생 학원과의학습의 실제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1.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1)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 2)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지도하고 있는가?
2.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1)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2)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길러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3.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 1)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원과외학습을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시키고 있는가?
  - 2)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과외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는가?
  - 3)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을 느끼면서 자녀들을 학원과외학습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4.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문제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1)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가 ?
  - 2)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3. 研究의 制限點

- 1) 본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한 국민학교 어머니 930명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용 분석 결과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 2) 연구내용에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인식, 학원교육의 효과와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시켰다.
- 3)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과외학습의 범위에 대해서 학원, 교습

---

소, 독서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실은 제외하고 학원과 교  
습소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4) 본 연구의 질문지는 표준화된 자료가 아니고, 연구자가 참고문헌, 선행연구  
논문, 교육현장 체험 등을 토대로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조언을 얻어 제작된  
것이므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II. 理論的 背景

학원과외학습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학부모의 의식구조속에서 도출시키기 위하여 '학원과외학습의 성격', '학교교육 현황',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관계',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 '학원과외학습의 과제' 등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學院教育의 性格

교육은 크게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에 의해서 수행된다. 각 개인의 교육은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학교외교육은 학교 이전, 학교교육 기간 동안 나아가서 학교를 끝마쳐진 이후에도 더욱 중요한 관련을 갖게 된다. 학교외교육은 그 점에서 학교교육과 다르면서도 기초교육이나 기능교육 등을 시기적으로 앞서 또는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학원교육은 학교외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사회교육 시각에서 국민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학원교육은 사회교육 중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그 영역도 넓고 교육 대상자 또한 방대하다(김중서, 1991). 특히 학원교육은 그 주요 소비자가 학생들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의 학력 신장과 관련시켜 전략적인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과외학습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학원교육은 주로 청소년층과 학령기 아동의 자발적인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인(私人)이 영리 추구를 그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원교육은 교육의 전체 구조속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가 떠 맡아야할 교육적 책무를 순전히 국민의 사교육비에 의해

서 운영되는 사회교육의 성격이 질다(정우현, 1993).

그러면서도 학원교육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 민주사회 건설, 학교교육의 보상, 국민교양교육, 청소년 지도 등(남정걸 외, 1993) 개인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학원교육의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학원교육은 사회및 국가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학원 및 수강자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다양성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함께 2대 국민교육기관중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학원교육의 방향은 언제나 국가 수준의 사회교육정책에 호응하는 쪽으로 수립되어야 하고(김수일, 1982), 전체 교육체제속에서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김종서, 1991).

그러나 이러한 위상은 학생 과외의 필요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볼 때 학원교육은 학교교육과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적다. 학원교육은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육제도와 조건 및 교육상황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중간에 위치한 독특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교육이나 학원교육은 각기 그 형식과 특성을 살려야 하고 학원교육은 사회교육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교육활동이 요구되지만 학습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은 독자성보다 상보성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김도수(1990)는 학원교육의 성격에 대해서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학원교육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교양, 직업, 건강, 체육, 취미, 오락 등을 학습하기 위하여 참가하게 되는 자발적인 학습진단에 의해서 성립되는 교육이다. 이에 비해 학교교육의 참가자는 자발적인 학습진단이라기 보다는 타율적이고 의무적인 특정인들의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자유의사에 의해서 참가하는 학원교육의 학습자들은 자기교육을 본질로

한다. 그들은 자기자신의 교양과 인격을 높이려는 교육의 의지, 즉 자기 스스로를 교육하려고 하는 자기교육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습자를 스스로 교육하려 하기보다는 법적, 제도적인 강제력을 수반하여 학습자를 이미 짜여진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학습자를 구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의 효과면에서 볼 때 학습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학습성과보다는 강렬한 학습욕구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학원교육의 성과가 높다고 알려져 왔다.

셋째, 사회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학원교육은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정규 학교교육이 학교교육으로서 그 특성이 지정되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공인되는 졸업증과 면허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원교육의 약점인 동시에 강점이기도 하다. 권위와 강요에 의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욕구가 억제되는 학교교육에 비한다면 이러한 학원교육의 특성은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넷째, 학원교육은 학교교육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활과제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지역과제를 생동력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은 교사라는 교육전문가에 의해서 방대한 문화유산을 정리·선택하여 전수하는 활동이므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에 편중될 수 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원교육은 학교교육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또 이들은 동일한 형태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학원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가면 갈수록 교육적으로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차이나 장점이 학습자의 학습을 보다 보완·조장할 수 있다면 두 기관의 기능은 상보적이며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과외학습이 지니는 성격이 국민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기초학습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능력 개발과 신장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학생들이 국민학교 입학 이전에 상당수 학생들이 학원과의 학습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독(讀), 서(書), 산(算)의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주산, 속셈, 컴퓨터, 응변 등의 프로그램이 주된 수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뚜렷해진다. 그러면서도 국민학생은 피아노, 미술, 서예, 태권도 등 기초 혹은 교양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수요도 상당히 많은 것이 학원과의 학습의 실정이다. 이런 부류의 프로그램은 학습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보다는 특기 개발이나 취미의 신장 등이 주요 목적이 되고 있으며, 또 이런 필요는 국민학생의 필요이기보다는 학부모의 교육관이 반영된 간접적 또는 2차적인 성격이 더 짙다.

이 점에서 학원과의 학습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원교육을 단지 사회·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보다 본격적 그리고 심층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원과의 학습이 더 선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학교교육과 동시적이며 연속선상의 시각에서 과외학습 프로그램의 양부(良否), 우열(優劣), 질적 빈부(貧富) 등 그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원과의 성격은 교육적인 논리로 조명하려는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2. 學院教育의 現況

우리나라의 학원교육은 개화기에 애국시민운동과 신문물 도입이라는 두가지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술강습회, 학술강습소 또는 야학이라는 형태로 조직되기 시작한 교육사업이 바로 오늘의 학원교육 역사의 출발이다. 일본 침략기에는 문맹퇴치와 독립정신을 계몽하였던 것으로 본다. 해방 후 미군의 주둔과 미군정 실시로 영문 타자수의 직업이 늘어나고 여성의 생활 스타일이 서구화로 타자학원과 미용학원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6·25사변 이후부터는 미용, 양재,



편물, 속기, 자동차, 타자 등의 기능 보유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을 위시한 지방도시에도 각종 학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1년에는 사실강습소에 관한 법률(제 719호)이 제정·공포되었고 그 당시 학원 수는 521개소, 학원 수강자 수는 21,517명으로 조사되었다(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1991).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을 계기로 기술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이를 충원하기 위한 기술계 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입시의 과열경쟁으로 입시계 학원이 기업화·영리화 되어가고 비정상적이며 값비싼 과외교습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가던 중 1980년에는 정부에 의해서 '과외 폐지'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1981년에는 외국어 전문학원이 인문계 학원으로부터 독립·조직화 되었고, 1985년에는 속셈학원의 설립인가와 소형 컴퓨터 학원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학원 수와 학원수강자 수는 <표 II-1>과 같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게 되었다(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1991).

<표 II-1> 연도별 학원수 변화추이

연 도	1961	1970	1980	1990	1994
학원수	521	1,421	5,854	32,895	48,476

자료 : 1. 문교부(1961-1990), 문교통계연보,  
2. 교육부(1994), 교육통계연보.

<표 II-1>과 같이 학원은 인문계 위주로 부터 벗어나 취미, 교양, 가정, 일상생활, 시민생활, 스포츠, 레크레이션, 기타 직업 준비에 관한 것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학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학원의 양적, 질적인 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학원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의 외곽에서 특정과목의 집중교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그 발전은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교육인구는 사회 전체 인구의 자연 증감과 인간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급격한 소년인구의 증가는 교육소비인구의 증가를 초래하여 학원교육의 발전 추세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사교육비의 증대를 야기시켜 교육에 대한 중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있었던 국민학교 재학생의 학원수강자 수 변화추이를 조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연도별 국민학교 재학생의 학원수강자수 변화

연도 구분	1968	1977	1982	1985	1988
학 생 수	5,548,577	5,514,417	5,465,248	4,856,752	4,819,857
학원수강자	23,484	144,668	465,248	971,787	1,924,700
%	0.4	2.6	3.7	20.0	39.9

자료 : 윤철경(1993), "초·중등교육 사부담교육비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에 관한 분석, 박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p.35.

<표 II-2>에 의하면 국민학생의 학원수강율이 1968년에 0.4%에 불과하였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39.9%가 되었고 이 후에도 계속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적인 기대가 현실적으로 반영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학원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이후 제주도 교육인구도 전국적인 베이비 붐(baby boom) 현상을 타고 급격히 늘어났는데 양적 규모면에서 대도시 못지 않은 대중교육체제를 확립하였다. 제주도는 비록 인구규모나 도세에 있어서는 열세에 처해져 있지만 타도에 못지않은 교육수요는 제주도 국민학교 교육인구의 변화를 증폭시켰다.

먼저 연도별 국민학생의 변화추이를 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연도별 제주도 국민학생 변화추이**

년 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국민학생수	64,201	71,820	76,179	61,441	56,033	45,743
학생수 증감	-	7,619	4,359	-14,733	- 5,409	-10,290
증 감 율	-	11.9	6.1	- 19.3	- 8.8	- 18.4

자료:1 제주도교육위원회(1970-1990), 제주교육통계연보.

2 제주도교육청(1994), 제주교육통계연보.

<표 II-3>과 같이 1954~1960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1960년대 말 까지 국민학생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베이비붐이 사라 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에 힘입어 출생인구 수와 더불어 국민학교 취학 학생 수는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70년에 64,201명이던 국민 학생 수가 1980년에 이르러서는 76,179명으로 정점을 이루더니 1981년이후 부터 연평균 2.1%의 감소율에 의하여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1994년 현재 45,749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인구 수는 학원교육이수자 수, 학원 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 다. 이에 연도별 학원교육이수자 수와 학원 수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표 II -4>과 같다.

**<표 II-4> 연도별 학원교육 이수자 수와 학원 수 변화 추이**

연 도	1970	1975	1981	1985	1990	1994
학 원 수	28	34	70	117	283	541
학원이수자 수	2,823	8,859	14,642	26,637	82,207	138,582

자료 : 1. 제주도교육위원회(1972-1990), 제주교육통계연보.

2. 제주도교육청(1994), 제주교육통계연보.

주 : 연도별 학원수강생 수는 초,중,고,대,일반인 모두를 포함한 숫자임

<표 II-4>와 같이 제주도의 학원 수는 1970년 28개소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4년에는 541개소로 19배 늘어났고 학원교육이수자 수도 1972년에 2,923명이 었으나 1994년에는 139,592명으로 48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학 원 수와 학원이수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학원의 계열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5>과 같다.

<표 II-5> 연도별 계열별 학원 수의 변화 추이

단위: 학원 수(%)

연 도	1972	1975	1981	1985	1990	1994
문 리 계	3(9.4)	3(8.8)	5(7.1)	8(6.8)	27(9.5)	23(13.5)
기 술 계	6(18.8)	8(23.5)	10(14.3)	13(11.1)	41(14.5)	70(12.9)
예 능 계	2(6.3)	3(8.8)	19(27.1)	45(38.5)	113(39.9)	209(38.6)
가 정 계	5(15.6)	.	1(1.4)	1(0.8)	1(0.4)	2(0.4)
사 무 계	12(37.5)	16(47.0)	18(25.7)	34(29.1)	101(35.7)	187(34.6)
기 타	4(12.5)	4(11.8)	14(20.0)	19(16.2)		
합 계	32(100)	34(100)	70(100)	117(100)	283(100)	541(100)

주: 연도별 학원 이수자 수는 초,중,고,대,일반인 모두 포함한 숫자임

<표 II-5>와 같이 학원 수 증가율에 대해서 예능계(104.5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문리계(24.3배), 사무계(15.6배), 기술계(11.7배), 가정계(0.4배)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학원계열 분포를 보면 1972년과 1975년 사이에 사무계가 가장 많고 예능계가 가장 적었는데 1981년이후부터 음악, 미술 중심의 조기교육 붐이 형성되면서 예능계학원이 가장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주산·속셈학원 중심의 사무계 학원, 컴퓨터 중심의 기술계학원 순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와 같이 새로 생기는 학원 거의 대부분이 국민학교교육과 관계가 깊은 학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녔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예능계, 속셈과 주산, 컴퓨터 등의 학원 증가 현상은 국민학생의 학원과외에 대한 필요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학생의 학원과외는 진학과 전혀 연관이 없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력을 보완·보충하고 예능의 잠재능력을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는 경쟁적 의미가 여기에 부과되어 학생들의 과외를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 된다.

### 3. 學校敎育과 學院敎育의 關係

학교敎育은 현행 敎育과정이나 敎育제도를 통해서 볼 때 개인의 잠재능력이 개발되어 사회적응을 돕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敎育은 규격화, 기계화, 획일화, 비인간화 등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비실용적이며 수단화 및 도구화된 문제를 지닌 곳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업은 미리 짜여진 敎育내용과 敎育과정에 따라 동일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 각자의 능력 및 적성이 제대로 조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획일적인 敎育과 다인수 과밀학습은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학원敎育의 필요는 이런 학교敎育의 문제와 학생의 욕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원敎育을 1~2개이상의 학원과외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학교학습의 결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학원敎育은 학교敎育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敎育과 관련된 학원敎育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원敎育은 학교敎育의 준비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민학생들은 이미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에 상당수가 학원敎育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학교 취학 이전부터 문자를 습득하고, 피아노를 치며, 그림을 그리는 일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학생들이 학원과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학교에 입학한 후 공부해야 될 학습과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능력을 보다 신장시키려는 예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피아노, 미술, 주산 등이 취학 전 아동들의 대중적인 인기과목이 되고 있음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본다.

둘째, 학원敎育은 기초학습 강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원과외학습의 영역은 보다 확대된다. 예를 들면 속셈, 주산, 피아노, 미술,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의 과목이 주요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

은 학부모들이 주로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수리와 기능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면에서 볼 때 피아노, 그림, 서예, 컴퓨터 등의 과목에 대해서 학교교육교육을 통하여 그 기능을 완전히 숙달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학원교육에서는 쉽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해소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학원교육은 국민학생의 기초학력을 상당히 강화시켜 주고 있다고 본다.

셋째, 학원교육은 학력 보완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민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학원과외 가운데에는 학교교과의 학습 연속선상에서 학력의 결손을 보충하거나 나아가서는 심화시키는 교과과외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속셈이나 주산학원 등에서는 산수지도가 중심이 되면서도 학생들이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어, 사회, 자연 등의 학교과제들을 학원강사가 해결해주어 사실상 가정학습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국민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습시켜 주지 않는 피아노 연주기능에 대해서 사실상 학원에서 지도해준 관계로 학생들은 그나마 음악적 기능과 잠재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가 있었지만 학원이 이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유추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가 지닌 교육과정 운영과 편제의 한계성 때문에 학생의 학습욕구를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일들을 학원에서 보완·심화시켜주고 있는 학원의 기능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다섯째, 학원교육은 재능 발견과 훈련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에 있어서 누구나 이수하는 보편적인 과목은 속셈·주산, 피아노, 미술, 등으로 알려져 왔다. 학생들 대다수가 이 과목들을 왜 제일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산수과에서는 기초학력을 다져주기 위해서이고, 피아노, 미술 등에서는 정서적인 교양의 필요에 의한 것이 그 목적인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위대한 수학가나 예술가를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산수 또는 예능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학습기능을 지니게 하는 훈련과정을 통하여 소질과 잠재능력을 발견하

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여섯째, 학원교육은 국민학생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있다. 국민학생에게 친구는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집단이다. 놀이는 여가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의 일 그 자체이며 공부와 연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치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통학수단의 발달로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교우 범위는 매우 확대되면서 학원과외의 또래들이 주된 놀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자기 학급반의 친구도 동네 이웃 친구도 아니라는 데에서 교우관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학교에서 보다 덜 공식적이고 과제 수행활동에서도 상호 경쟁적인 측면보다 협조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학원은 레크레이션, 야외행사 등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학교보다 신축성 있게 공부와 놀이가 어울려지는 생활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학습분위기는 학습활동을 덜 강요적이고 한층 우호적으로 만들어 친구를 사귀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 등 학교생활과는 다른 사태나 분위기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국민학생이 학교공부를 끝마치고 난 후 가정의외에 가야할 곳도 늘어나 할 마땅한 곳도 없는 우리 사회인 것을 생각할 때 학원은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이며 감호(監護)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의 관계에서 학원교육은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그 하나는 가르치는 교과영역이나 과제들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맞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취학이전이나 국민학교에 다니면서도 학생들은 동일한 학습내용이나 학습과제들을 두 기관에서 중복 학습하므로써 자칫 어느 한 곳의 과업이나 흥미를 잃기 쉽고 특히 학습과제의 난이도 면에서 뚜렷한 차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가 없음은 더욱 그러한 측면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학습시간의 낭비이다. 학원 출입에 따른 시간만이 아니라 학원에서 보내는 생활 상당 부분의 시간도 누수가 없을 수 없고 그것은 학습시간의 통제

나 학습시간의 진행밀도가 학교처럼 규칙적이거나 강하게 운영될 수가 없다는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어쩌면 학생의 동기나 적극성이 없을 때 학원에 다니는 의미 이상의 별다른 진전이나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학원운영자나 학원강사의 강한 책임감에 기대할 수 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윤리성에 맡겨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다. 사귀는 친구 모두가 좋은 친구일 수만은 없고 상호간에 배우는 것도 긍정적이거나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세계이다.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좋지 않은 만화를 돌려보거나 정보의 교환 혹은 놀이감의 접촉 등은 학원친구들도 좋은 매개의 원천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학원에서의 생활지도는 전혀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느 교육기간에도 있을 수도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 학부모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학원생활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은 우리 한국 사회의 특별한 교육현상이다. 어쩌든 학원교육의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긍정적인 측면의 교육적인 기능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학원과의 문제는 보다 관심을 갖고 그 실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함으로써 국민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긍정적인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라 생각한다.

#### 4. 國民學生의 學院課外學習

학력은 학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우리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만큼 학교생활을 의의있게 해주는 것은 없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학교생활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45.2%)이고,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내용 역시 학교성적(56.1%)이라는 사실은 학교에서 학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신세호 외, 1991).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에 진학했는가? 못했는가? 그리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했는가?에 따라서 개개인의 장래 진로는 물론 사회적 지위, 취업 가능 직종, 보수 수준, 심지어는 결혼 배우자 선택에 까지 학벌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학력 내지 석차가 학부모의 의식속에 고착화 됨으로써 학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과열 과외현상으로까지 확장되는 요인이라고 본다(신세호 외, 1991).

이와 같이 학원은 부모의 과열된 교육요구와 학력경쟁 의식에서 파생된 교육 체제로서의 성격이 현실적으로 짙다. 학원은 지리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교육장소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지만 학업성취 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필요와 석차를 갖다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수계열학원을 수강한 집단은 산수과나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예·체·기능학원을 수강한 집단은 그러하지 않은 집단보다 음악, 미술, 체육과의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원을 수강하고 있는 아동 집단은 그러하지 않은 집단보다 정의적 특성에서 사회적 자아개념과 교우, 학업, 교사에 대한 태도에서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곽희선, 1992)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의 학원교육에 대한 인식이 불명료하고 목적의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아동들은 장기간 또는 하루에도 1~2시간씩 학원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가 하면 그 의미나 필요에 대해서도 주관적 지각하에 자녀들에게 이를 권유 또는 강요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학생의 학원교육은 아동의 소질, 재능에 맞아야 되고 교육적 필요에 맞아야 한다.

여기에서 학원교육과 과외교습은 학생 자신의 필요나 부모의 과열된 교육관에서 파생되어지는 면이 적지 않으며 사회교육 본연의 목적 추구보다는 자녀의 학업성적 향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면도 적지 않다. 이는 아동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나아가 정서적 불균형과 비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원과외학습은 학교교육 결핍에 대한

상보적 기능으로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합이되지 못하므로서 기본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은 학교교육의 획일성, 주입성, 집단적 비인간화 현상과 교과서 중심의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과업에 맞는 적당한 학습을 실시하여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결손된 학습을 보완·보충함과 아울러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남정걸 외,1993).

현실적인 면에서 학력의 가치가 학교 안팎에서 지나치게 작용하고 학력향상의 욕구를 학교에서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학원과외학습이 학교교육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완·보충하는 학교외의 계속교육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국민학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그 본질을 외면해서는 교육적 평가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국민학생의 학원과외는 학교외 교육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받는 것이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신세호 외, 1991).

첫째, 아동의 발달단계의 달성을 도와주며 학교교육에서 결핍되기 쉬운 잠재능력의 개발, 소질과 적성의 개발, 특기교육을 통해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의 보조적 연계를 통한 계속교육체제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원교육 방향은 먼저 사회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의 결핍에 대한 상보적 기능으로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학생이 대부분 수강하고 있는 학원의 교과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학교교육과정속의 교과·특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야 한다.

넷째, 표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학교교육이 제공해 줄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발력을 갖춘 학원교육이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교육적 속성을 가진 기능이어야 한다.

## 5. 學院課外學習의 課題

학원과의 학습이 자라나는 내일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성장을 꾀하는 국민 모두를 위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내용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아직도 학원과의 학습에 대해서는 그 공헌에 못지않게 학력의 가치가 지나치게 작용하는 사회적 환경요인과 학력향상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학교교육 현실 때문에 학원과의 학습의 문제는 이른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원과의 문제는 단일한 시각이나 일부 국민의 노력으로서는 해결될 수도 없고 학교의 교육활동과 연관지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원과의 학습의 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 교육사회적인 측면, 학원교육개방에 따른 학원교육 과제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 1) 社會·經濟的 側面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9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GNP의 7%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자료: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1991: 3~7). 통칭 사교육비는 학원과의 학습비, 학용품비, 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목은 학원과의 학습비이다. 학원과의 학습비는 사교육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환언하면 GNP의 3.5% 수준이며 교육부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이다.

사부담교육비에 의해 유지되는 교육체제는 교육기회 배분을 계층간 경쟁에 그 대로 방치함으로써 계층간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낳아 기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해 내는데 기여한 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교육에 있어 사교육비 의존도가 높은 사회는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하류 계층은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모든 면에서 소외될 뿐이다. 교육이 계층의 경제적 능력에 그대로 내맡겨지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평등화 기제로서 교육의 최소한의 가능성마저도 무력화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평등을 통한 사회평등의 실현,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교육정책 의미는 소멸되고 만다. 자본주의적 불평등이 교육불평 등으로 구체화되어 작용한다면 이는 결코 민주적이고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윤철경, 1991).

앞으로 교육비의 사부담 문제는 학원교육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아동기라고 해서 사회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교육, 학교교육 측면에서 학원교육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教育的인 側面

아동기의 학원과외학습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현재도 미래사회에서도 또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어야 한다. 교육기회의 풍요라는 측면에서 학원교육이 학생교육을 위해 계속적으로 존재되어야 할 근거가 성립되고 있는 까닭이다. 학교외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학원교육으로 옮겨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동기의 전인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되어야 한다. 각 학원은 대부분이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예능계는 정서발달 영역에, 체능계는 신체·건강 증진에, 기능계는 개인 기술훈련에만 중점을 두는 나머지 균형있는 인간성 함양을 소홀히하므로 전인적 교육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원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각 학원에서는 전인적 교육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은 물론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류중현, 1980).

둘째, 학원도 교육기관인 만큼 학원강사의 전문성은 높아져야 하는 것은 절실하다. 사회교육법에서는 전문요원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체·기능강사들의 50%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고, 또한 전혀 자격이 없는 강사도 미술학원에 28%, 음악학원에 59%나 된다는 사실은 아동기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 향상 및 자격 강화가 절실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교육의 성패가 우수한 교사의 확보여하에 달려 있듯이 사회교육의 성패 또한 유능한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문선, 1987).

셋째, 아동의 폭넓은 활동여건을 조성하여야 된다. 사설학원의 대부분이 2,3층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활동 공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전반적인 심신발달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원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환경 및 보건, 위생상 불충분한 조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류중현, 1980).

넷째, 학원운영의 영세성은 탈피해야 한다. 특히 방학을 이용하는 특강일 경우 수강학생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서 개성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요구하는 학습내용을 모두 터득하기가 어렵게 된다. 학원의 운영자는 학원도 교육기관임을 자각하고 사회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류중현, 1980).

다섯째, 현재 학원·교습소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적 안일주의와 학원의 사회교육적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도위원들을 사회교육전문 요원들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며 사회교육의 중요성과 학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지도요원 대상의 정기적인 현직 연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남정걸 외, 1993).

### 3) 學院教育 開放에 따른 學院教育 課題

학습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고 이를 기초로 인간은 사회 및 국가와 더불어 발전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인 것이 아니라면 누가 누구에게 배우고 가르치든 간에 합부로 제한될 성질이 아니므로 국가는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학원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었으나 외국 학원이 '95년부터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학원 관계자는 국제경쟁력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의 과목에 대한 학원수강을 국민학생에게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이제 국민학생에게 일반과목 허용 반대, 학원 개방을 계속 억제할 형편은 아니다. 학원수강을 전면 허용함과 함께 국가는 학교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진학에도 문제가 없도록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학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교육기관은 정규교육기관을 보충하는 제 기능을 다할 때 교육의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한국교육신문, 1994년 8월 17일).

따라서 학원과외학습의 목표나 프로그램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학부모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밝혀져야 학원과외학습은 제 2의 국민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적절히 설정될 것이다.



### Ⅲ. 研究의 方法

#### 1. 研究對象 및 標集

본 연구는 제주도내 13개 국민학교 학생의 어머니 9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시, 읍소재지, 농어촌으로 나누어 유층무선표집(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다. 조사기간은 199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이다.

질문지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직접 보내어 자유응답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930부였으나 913부만이 회수되어 98.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응답된 질문지 31부를 제외한 나머지 882부만을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을 지역별로 자료 배부, 회수, 활용 상황을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질문지의 배부, 회수율

구 분	표집 학교수	표집 인원수	회수 자료수	회수 율(%)	활용 자료수	활용 율(%)
도 시	5	450	442	98.2	434	98.2
읍소재지	4	240	236	98.3	232	96.3
농 어 촌	4	240	235	97.9	216	91.9
합 계	13	930	913	98.0	882	96.0

주: 질문지 응답자를 어머니로 정한 이유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보고(김영화 외, 1993)에 의해서이다.

## 2. 研究 道具

국민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지니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학원과외학습에 관한 인식, 학원과외학습 효과와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법, 교육사상, 교육철학, 가치관과 관련된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물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항목과 내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난 후 120명에게 예비검사를 통하여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확정하였으며 문항 구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지의 내용

영역	설문주제	설문내용	문항번호	
1.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일반적인 인식	1.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1. 학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간상	1	
		2.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2	
	2. 자녀의 진로	1. 개인의 성공 요인	3	
		2. 교육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4, 5	
		3. 자녀의 학력 기대 수준	9	
		4. 학력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	10	
	2.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1. 자녀의 학업 성적	1. 자녀의 학업성적 인지	6
			2. 학업성적에 관한 과민한 이유	7
			3. 특기 신장에 미친 요인	8
		2. 학교 교육 활동	1. 학교교육 중점	11
2. 학교교육의 질 개선의 필요성			12	
3.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분야			13	



영역	설문주제	설문내용	문항번호	
3. 학원 과의학습의 실태 및 그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	1. 학원과의학습 목적과 필요성	1. 학원과의학습의 필요성	24	
		2. 학원과의학습의 목적	25	
	2. 학원 과의학 습 실태		1.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수강 실태	14,15
			2. 최초의 학원과의 시기	16
			3. 최초로 수강한 학원과의 계열	17
			4. 학원과의 선택	18
			5. 학원과의학습 소요 시간	19
	3. 학원과의학습 비 가계 부담		1. 학원과의학습비 1인당 연간 지출 규모	20
			2. 학원과의학습비 가계에 미치는 영향	21
			3. 학원과의학습 지속 여부	22,32
		4. 학원과의학습비 가계 부담에 대한 인식	23	
4. 학원 과의학습의 효과와 문제 의성과와 과제	1. 학교 교육과 학원 과의학습 비교	1. 학교교육과 학원과의학습 차이점 비교	26	
		2. 학교교육과 학원과의학습 비교	27	
		3. 학원과의 강사에 대한 인식	28	
	2. 학원과의학습 의성과와 과제	1. 학원과의학습의 혜택	29	
		2. 학원과의학습 때문에 생긴 문제점	30	
		3. 바람직한 학원과의학습	31	

### 3. 資料 處理 및 分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각 문항별 반응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낸 후, 아동이 다니는 학교 소재지별, 자녀의 학년에 따른 학부모별, 자녀의 성에 따른 학부모별, 직업별, 어머니 학력별, 월평균가계 소득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chi^2$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 IV. 結果 및 解釋

### 1. 敎育에 대한 學父母의 일반적인 認識

국민학생들의 학원과외학습은 자신의 동기나 목표에 의한 선택보다는 학부모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외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 과외의 선택이나 교육과정은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교육열, 기대, 가치가 전제되어 이에 따른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외교육으로 진전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 내지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진로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 1) 子女敎育에 대한 關心



부모의 교육의식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런 관점에서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 대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대하는 인간상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 의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학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간상,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1) 學父母가 子女에게 기대하는 人間像

오늘날 부모가 되면 누구든지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부모들은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인간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한다. 경제적인 사람, 정치 및 관료적인 사람, 전문적인 사람, 봉사적인 사람 등과 같이 학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간상을 달리하게 된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표 IV-1>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1>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인간상

반응 구분	단위:사람수(%)				비고
	경제적으로부유한 사람	높은지위에오른 사람	많은지식과 기술을가진 사람	사회발전을 위해봉사하는 사람	
남 학생	15(3.6)	23(5.5)	234(56.4)	143(34.5)	$\chi^2=9.09$ $df=3$ $p<.05$
여 학생	14(3.0)	31(6.6)	219(46.9)	203(43.5)	
전 체	29(3.3)	54(6.1)	453(51.4)	346(39.2)	

<표 IV-1>와 같이 교육받은 자녀가 장차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1.4%가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39.2%가 ‘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6.1%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3.3%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다.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미래 인간상은 자녀의 성장면에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p<.05$ ).

이와 같이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미래 인간상에 대한 인식은 국가주의 또는 봉사주의 가치관 보다는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 (2) 子女教育을 위한 父母의 役割

부모의 양육 태도나 생활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부터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공부 열심히 하여 학업성적 올라가도록 보살펴 주는 일,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도록 이끌어 주는 일,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해 주는 일, 여러가지 재주를 지니도록 도와 주는 일 등 부모의 역할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면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 IV-2>는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IV-2>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사람수(%)

반응 구분		A	B	C	D	계	비 고
		학 교	시	22( 5.1)	354(82.1)	34( 7.9)	21( 4.9)
	읍소재지	11( 4.8)	189(82.2)	26(11.3)	4( 1.7)	230	$df=6$
소재지	농어촌	29(13.1)	157(71.0)	27(12.2)	8( 3.6)	221	$p<.01$
월 평균 가계 소득	50만원 미만	8(19.0)	25(59.5)	8(19.0)	1( 2.4)	42	
	50~100만원	17( 6.9)	190(79.2)	25(10.2)	14( 5.7)	246	$\chi^2=20.98$
	100~150만원	22( 7.3)	242(80.7)	27( 9.0)	9( 3.0)	300	$df=12$
	150~200만원	8( 4.5)	147(83.5)	15( 8.5)	6( 3.4)	176	$p<.05$
	200만원 이상	7( 5.9)	96(81.4)	12(10.2)	3( 2.5)	118	
전 체		62( 7.0)	700(79.4)	87( 9.9)	33( 3.7)	882 (100)	

A : 공부 열심히하여 학업성적 올라가도록 살펴주는 일

B :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도록 이끌어 주는 일

C :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해주는 일 D:여러가지 재주를 지니도록 도와주는 일

<표 IV-2>와 같이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도록 이끌어주는 일’(79.4%)을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학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간상과 그에 따른 역할과는 실

제적으로 많은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미래에 기대하는 인간상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많은 지식과 기술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공부 열심히 하여 학업성적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보살피주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녀의 미래에 기대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간상은 두번째 순위로 나타나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학부모가 바라는 인간상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현실적인 갈등을 드러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이중적인 의식 구조를 드러내고 있어 실제적으로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고민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도록 이끌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 학부모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면 읍소재지(82.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시(82.1%), 농어촌(71.0%) 순으로 나타났다( $P<.01$ ). 그리고 소득별로 보면 150만원~200만원(83.5%)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00만원 이상(81.4%), 100만원~150만원(80.7%), 50만원~100만원(79.2%), 50만원 미만(59.5%) 순으로 나타났다( $P<.05$ ).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知), 체(體), 기(技)보다는 덕(德)을 즉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실제 역할에 대해서는 이와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 2) 子女의 進路

학부모는 자녀의 적성과 능력을 기초로 변화하는 일의 세계속에서 개인의 삶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 기능을 길러주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지도는 실상 자녀들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보다는

부모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자녀 개개인이 지닌 요인 못지 않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에 대한 학력의 기대, 또는 본인의 포부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바람직한 진로라고 할지라도 그 진로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인식이나 사회적인 평가에 거리가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부모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요인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등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개인의 성공요인, 교육의 사회·경제적 영향, 자녀의 기대학력 수준, 학력이 계속 높아져야 하는 이유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 (1) 個人의 成功 要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결정요인에 대해서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력, 가정 환경, 출신지 배경, 학벌 등 개인이 성공에 필요한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 <표 IV-3>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3>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결정적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사람수(%)

반 응		학력	가정 환경	출신지 배 경	학벌	계	비 고
학 년	1 학년	20(14.6)	107(78.1)	1( 0.7)	9( 6.6)	137	$\chi^2=24.73$ $df=15$ $p<.05$
	2 "	27(19.3)	101(72.1)	2( 1.4)	10( 7.1)	140	
	3 "	21(14.6)	109(75.7)	5( 3.5)	9( 6.3)	144	
	4 "	46(28.8)	100(62.5)	3( 1.9)	11( 6.9)	160	
	5 "	31(20.8)	100(67.1)	1( 0.7)	17(11.4)	149	
	6 "	38(25.0)	101(66.4)	1( 0.7)	12( 7.9)	152	

반응		학력	가정 환경	출신지 배경	학벌	계	비고
학부모 직업	행정·사무직	70(22.8)	208(67.5)	2( 0.6)	28( 9.1)	308	$\chi^2=32.20$ $df=12$ $p<.01$
	생산·근로직	62(25.3)	160(65.3)	4( 1.6)	19( 7.8)	245	
	서비스직	10( 4.1)	78(81.8)	3( 1.1)	5( 2.0)	96	
	전문·기술직	20(31.8)	36(57.1)	0( 0 )	7(11.1)	63	
	자영업·판매직	21(12.4)	136(80.0)	4( 2.3)	9( 5.3)	170	
전체		183(20.7)	618(70.1)	13( 1.5)	68( 7.7)	882 (100)	

<표 IV-3>과 같이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결정적 요인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가정환경'(7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학력'(20.7%), '학벌'(7.7%), '출신지 배경'(1.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년에 따라 고학년 학부모보다는 중학년 학부모, 중학년 학부모보다는 저학년 학부모에서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가정 환경'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으며( $P<.05$ ), 학부모 직업별에 따라 서비스직의 학부모가 전문·기술직의 학부모보다 '가정배경'이 개인의 성공에 결정적인 것으로 '가정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P<.01$ ).

이와 같이 개인의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가정 환경'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 (2) 教育의 社會的·經濟的 影響

우리나라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급학교 진학율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등과 같은 고도의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부의 증대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믿는 이유이다.

다음은 교육이 개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부의 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

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 본 결과이다.

<표 IV-4> 교육이 사회적 지위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사람수 (%)

반 응		대단히	많은	그다지 영	전혀 영	비 고
		큰 영향 을준다	영향을 준다	향을 주지 못한다	향을 주 지 못한다	
어 머 니  학 력	대학이상졸업	60(40.5)	83(56.1)	5( 3.4)	148	$\chi^2=40.58$ $df=9$ $p<.001$
	고등학교졸업	187(37.9)	287(58.2)	20( 4.0)	494	
	중학교 "	57(30.6)	115(61.8)	14( 7.5)	186	
	국민학교 "	16(29.6)	31(57.4)	5( 9.3)	30	
월 평 균 가 계 소 득	50만원 미만	8(19.0)	30(71.4)	4( 9.5)	42	$\chi^2=28.52$ $df=9$ $p<.001$
	50~100만원	86(35.0)	142(57.7)	16( 6.5)	2 176	
	100~150만원	94(31.3)	189(63.0)	17( 5.7)	300	
	150~200만원	76(43.2)	95(54.0)	5( 2.8)	176	
	200만원 이상	56(47.5)	60(50.8)	2( 1.7)	118	
전 체		320(36.3)	516 (58.5)	44( 5.0)	2( .2)	882 (100)

<표 IV-4>에 의하면 교육이 사회적 지위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많은 영향을 준다'(58.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36.3%) 등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장 많이 반응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이 사회적 지위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개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 교육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이 개인이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밝혀 졌다( $p<.001$ ).



<표 IV- 5>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사람수(%)

반 응 구 분		대단히	많은	그다지 영	전혀 영향	계	고
		큰 영향 을 준다	영향을 준다	향을 주지 못한다	을 주지 못한다		
학 교 소재지	시	31( 7.2)	315(73.1)	83(19.3)	2( .5)	431	$\chi^2=$ 15.27 $df=6$ $p<.05$
	읍소재지	19( 8.3)	175(76.1)	36(15.7)		230	
	농어촌	24(10.9)	152(68.8)	39(17.6)	6(2.7)	221	
어머니 학력	대졸	7( 4.7)	109(73.6)	31(20.9)	1( .7)	148	$\chi^2=$ 25.61 $df=9$ $p<.00$
	이상	41( 8.3)	368(74.5)	84(17.0)	1( .2)	494	
	고졸 "	18( 9.7)	128(68.8)	37(11.1)	3(5.6)	186	
	중졸 "	8(14.8)	37(68.5)	6(11.1)		54	
	국졸 "						
전 체		74( 8.4)	642(72.8)	158(17.9)	8( .9)	882 (100)	

<표 IV- 5>에 의하면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영향을 준다'가 91.2%로 나타나 교육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의 증대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농촌지역일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p<.05$ ,  $p<.001$ ).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일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일수록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경상남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박윤도 연구(1991)

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 (3) 子女의 期待學歷 水準

개인이 얼마나 많은 학교교육을 받았으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일생동안의 사회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시기에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이 높을수록 기대열의와 진학에 대한 태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머니 학력별과 가계소득별로 비추어 본 결과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학력 수준

반 응		단위:사람수(%)				비 고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이상	계	
어 머 니 학 력	대졸 이상	3( 2.0)	71(48.0)	74(50.0)	148	$\chi^2=$ 35.89 $df=6$ $p<.001$
	고졸 "	17( 3.4)	303(61.3)	174(35.2)	494	
	중졸 "	8( 4.3)	145(78.0)	33(17.7)	186	
	국졸 "	4( 7.4)	41(75.9)	9(16.7)	54	
월 평 균 가 계 소 득	50만원미만	5(11.9)	26(61.9)	11(26.2)	42	$\chi^2=$ 42.99 $df=8$ $p<.001$
	50~100만원	15( 6.3)	175(71.1)	56(22.8)	246	
	100~150만원	7( 2.4)	193(64.3)	100(33.3)	300	
	150~200만원	3( 1.7)	103(58.5)	70(39.8)	176	
	200만원 이상	2( 1.7)	63(53.4)	53(44.9)	118	
전 체		32( 3.6)	560(63.5)	290(32.9)	882 (100)	

<표 IV-6>과 같이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학력수준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대학교'(63.5%), '대학원 이상'(32.9%), '고등학교 이하'(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 학부모의 96.4%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학력이 낮을수록 '대학'을 기대하고 있으며( $p < .001$ ),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월평균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대학교' 학력을 기대하고 있다( $p < .001$ )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의 국민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김영화 외 연구(1993)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 (4) 學歷이 계속 높아져야 하는 理由

인간은 기본적으로 잠재적 경쟁 상태에 있다고 한다. 교육인구의 증가와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여유는 국민의 지적 수준을 총량 면에서 높여주므로서 교육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학력경쟁, 학벌경쟁, 점수경쟁, 등수경쟁 등과 같은 교육경쟁은 사회적인 문제로 가끔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느 수준까지 학교공부를 하였는가는 그 사람의 사회생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학력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그 근거를 보면, 직업 선택에 유리하므로,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므로,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므로, 정보가 날로 늘어나므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교육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부모 인식은 어머니 학력별, 월평균가계소득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표 IV-7>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7>과 같이 학력이 계속 높아져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에 의하면 '지식과 정보가 날로 늘어나므로'(43.1%)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 선택에 유리하므로'(34.7%),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므로'(16.6%),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므로'(5.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직업 선택에 유리하므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식과 정보가 날로 늘어나므로'이고, 고졸이상은 '지식과 정보가 날로 늘어나므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직업 선택에 유리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 $P < .001$ ).

<표 IV-7> 학력이 계속 높아져야 하는 이유

단위:사람수(%)

반응		A	B	C	D	계	비고
구분							
어머니 학력	대학이상졸업	44(29.7)	6(4.1)	22(14.9)	76(51.4)	148	$\chi^2=44.42$ $df=9$ $p<.001$
	고등학교졸업	159(32.2)	32(6.5)	74(15.0)	229(46.4)	494	
	중학교 "	87(46.8)	5(2.7)	31(16.7)	63(33.9)	186	
	국민학교 "	16(29.6)	7(13.0)	19(35.2)	12(22.2)	54	
월 평균 가계 소득	50만원 미만	20(47.6)	1(2.4)	15(35.7)	6(14.3)	42	$\chi^2=34.32$ $df=12$ $p<.001$
	50~100만원	88(35.8)	17(6.9)	40(16.3)	101(41.1)	246	
	100~150만원	105(35.0)	20(6.7)	53(17.7)	122(40.7)	300	
	150~200만원	55(31.3)	5(2.8)	27(15.3)	89(50.6)	176	
	200만원 이상	38(32.2)	7(5.9)	11(9.3)	62(52.5)	118	
전체	306(34.7)	50(5.7)	146(16.6)	380(43.1)	882 (100)		

A : 직업 선택이 유리하므로 B :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므로  
C :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므로 D : 지식과 정보가 날로 늘어나므로

월평균가계소득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은 '직업 선택에 유리하므로'가 가장 많고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므로'가 가장 적으며, 50만원 이상은 '지식과 정보가 날로 늘어나므로'가 가장 많고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므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것은 어머니 학력이나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정보가치에 대한 인식이 보다 민감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본다.

## 2. 學校教育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학교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인간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적응해 가는 현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이 사회적 성취를 위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학교교육에 대한 의미는 학부모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교육 기회 획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부모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학부모의 관심은 학교교육 활동이나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가지 다른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 대해서 자녀의 학업성적, 학교교육 활동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 1) 子女의 學業成積

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오늘의 생활을 보다 낮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을 상급학교 진학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획득을 위한 합법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를 이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학업성적에 대한 인지 정도, 학업성적에 과민한 이유, 특기 신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등을 자녀의 학업성적과 관련지어 알아 보았다.

#### (1) 子女의 學業成積에 대한 認知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매우 민감하다.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지식의 지적, 인격적 성숙보다 자식으로 하여금 일류학교에 들어가므로써 장래의

사회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다음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 본 것이다.

<표 IV-8> 자녀의 학업 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 정도

단위:사람수(%)

반 응		구 분				비 고
		우수	보통	보통이하	계	
학교	시	159(36.9)	265(61.5)	7( 1.6)	431	$\chi^2=16.72$ $df=4$
소재	읍소재지	81(35.2)	147(62.9)	2( 0.9)	230	
지	농어촌	50(22.6)	164(74.2)	7( 3.2)	221	p<.01
어	대졸 이상	64(43.2)	84(56.8)		148	$\chi^2=12.83$ $df=6$ p<.05
머	고졸 "	159(32.2)	324(65.6)	11( 2.2)	494	
니	중졸 "	50(26.9)	132(71.0)	4( 2.2)	186	
학력	국졸 "	17(31.5)	36(66.7)	1( 1.9)	54	
전 체		290(32.9)	576(65.3)	16( 1.8)	882 (100)	

<표 IV-8>과 같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학부모 인지의 전체적인 경향은 '보통'(65.3%), '우수'(32.9%), '보통이하'(1.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에 따라 시나 읍소재지 학부모가 농어촌의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업 성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P<.01). 그리고 어머니 학력별에 따라 대학 이상 졸업 어머니가 고등학교 이하 졸업 어머니보다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P<.05).

이것으로 보아 도시에 사는 학부모일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2) 學業成績에 過敏한 理由

일반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가 공부 잘 해주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공부 많이 시키고 싶어한다.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교육 수준이나 학업성취의 정도가 학부모의 처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관해서는 과민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공부 잘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로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하여 등과 같이 여러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조사해 본 결과 <표 IV-9>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9> 자녀의 학업성취에 과민한 이유

단위:사람수(%)

반응	A	B	C	D	계	비고
학부모직업						
행정·사무직	191(62.0)	36(11.7)	23( 7.5)	58(18.8)	308	$\chi^2=41.85$ $df=12$ $p<.001$
생산·근로직	138(56.3)	34(13.9)	20( 8.2)	53(21.6)	245	
서비스직	49(51.0)	20(20.8)	10(10.4)	17(17.7)	96	
전문·기술직	35(55.6)	14(22.2)	4( 6.3)	10(15.9)	63	
자영·판매직	93(54.7)	26(15.3)	14( 8.2)	37(21.8)	170	
전 체	506(57.4)	130(14.7)	71( 8.0)	175(19.8)	882 (100)	

A :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되므로

B :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C : 공부잘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D :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로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하여

<표 IV-9>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과민한 이유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되므로' (57.4%)에 공통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학부모 직업별로 보면 행정·사무직(62.0%)이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생산·근로직(56.3%), 전문·기술직(55.6%), 자영·판매직(54.7%), 서비스직(51.0%) 순으로 별다른 차이없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p<.00).

이것으로 보아 아직도 교육을 진학과 직업 선택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特技 伸張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要因

학업성적 못지않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능력과 특기는 사회적 지위획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학생의 표현기회를 중요시하는 관계로 개성과 소질의 발견 및 신장 도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소질에 귀인되는 바도 크지만 한편으로 후천적인 지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학교교육에 의한 지도, 학부모의 교육열에 의한 지원, 학원교육과 같은 특기 신장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그 능력은 다르게 발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네가지 요인이 특기 신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응을 알아 보았다.

<표 IV-10> 특기 신장에 중요하게 작용요인에 대한 인식

반 응		단위:사람수(%)					비 고
		소질과 적성	담임교사 지도	학부모의 교육열	학원과의 교육	계	
학 교 소재지	시	324(75.2)	68(15.8)	29( 6.7)	10( 2.3)	431	$\chi^2=24.84$ df=6 p<.001
	읍소재지	163(70.9)	52(22.6)	10( 4.3)	5( 2.2)	230	
	농어촌	132(59.7)	71(32.1)	12( 5.4)	6( 2.7)	221	
어머니 학력	대졸 이상	122(82.4)	10( 6.8)	13( 8.8)	3( 2.0)	148	$\chi^2=40.71$ df=9 p<.001
	고졸 "	353(71.5)	105(21.3)	22( 4.7)	13( 2.6)	494	
	중졸 "	113(60.8)	55(29.6)	13( 7.0)	5( 2.7)	186	
	국졸 "	31(57.4)	21(38.9)	2( 3.7)		54	



반응		소질과	담임교사	학부모의 학원과외		계	비고
		적성	지도	교육열	교육		
구분	50만원 미만	22(52.4)	18(42.9)	2( 4.8)		42	$\chi^2=23.56$ $df=12$ $p<.05$
	50~100만원	161(65.4)	62(25.2)	1( 6.1)	8( 3.3)	246	
	100~150만원	212(70.7)	61(20.3)	20( 6.7)	7( 2.3)	300	
	150~200만원	136(77.3)	31(17.6)	5( 2.8)	4( 2.3)	176	
	200만원 이상	88(74.6)	19(16.1)	9( 7.6)	2( 1.7)	118	
전체		619(70.2)	191(21.7)	51( 5.8)	21( 2.4)	882 (100)	

<표 IV-10>와 같이 자녀의 특기 신장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소질과 적성'(70.2%)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열과 학원과외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머니 학력별로 보면 대학 이상의 졸업 어머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어머니, 중학교 졸업 어머니, 국민학교 졸업 어머니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리고 월평균가계소득별로는 150만원~200만원(77.3%)로 가장 높고 50만원 미만이 가장 낮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P<.05$ ).

## 2) 學校教育活動

오늘날과 같이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혼란되고 불확실성의 여지가 많은 시기에 비록 학부모 전부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녀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다양하고 심대하다.

여기서는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대해서 학교의 교육중점, 학교교육 개선의 필요성, 학교교육의 불만족스러운 분야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1) 學校의 教育重點에 대한 認識

학교는 교육을 하나의 전문적 사업으로서 특별히 마련된 교육적 환경이다. 사람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지적 요구와 인격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교육을 자칭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적인 역할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목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등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1> 학교의 교육중점에 대한 인식

단위:사람수(%)

반응 구분		A	B	C	D	계	비고
		학교소재지	시	84(19.5)	195(45.2)	72(16.7)	80(18.6)
읍소재지	42(18.3)	97(42.2)	36(15.7)	55(23.9)	230		
농어촌	53(24.0)	67(30.3)	42(19.0)	59(26.7)	221		
학년	1학년	23(16.8)	66(48.2)	23(16.8)	25(18.2)	137	$\chi^2=33.63$ $df=15$ $p<.001$
	2 "	34(24.3)	67(47.9)	12( 8.6)	27(19.3)	140	
	3 "	28(19.4)	68(47.2)	15(10.4)	33(22.9)	144	
	4 "	32(20.0)	59(36.9)	37(23.1)	32(20.0)	160	
	5 "	30(20.1)	55(36.9)	29(19.5)	35(23.5)	149	
	6 "	32(21.1)	44(28.9)	34(22.4)	42(27.6)	152	

반응 구분		A	B	C	D	계	비고
		어머니	25(16.9)	74(50.0)	32(21.6)	17(11.5)	
대졸 이상	98(19.8)	224(45.3)	69(14.0)	103(20.9)	494		
고졸 "	44(23.7)	53(28.5)	32(17.2)	57(30.6)	186		
중졸 "	12(22.2)	8(14.8)	17(31.5)	17(31.5)	54		
학력	국졸 "	179(20.3)	359(40.7)	150(17.0)	194(22.0)	882	
전체					(100)		

- A :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  
 B :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C :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 교육  
 D :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표 IV-11>과 같이 '학교는 어떤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40.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먼저 학교 소재지별에 따라 살펴보면 시의 경우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45.2%)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19.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읍소재지와 농어촌인 경우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P<.01$ ).

자녀의 학년에 따라 저학년의 학부모들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고학년의 학부모들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P<.001$ ).

어머니 학력별에 따라 대학 이상 졸업 어머니는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어머니는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순으로

로 나타났다( $P < .001$ ).

우리 학부모들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국민학교 교육목표로 보고 있는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학교 교육이 학생 성장의 제 측면을 조화롭게 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그들은 자녀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기본학습능력과 기초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언어 습관, 정서, 성격, 신체 등 아동 생활 전반에 걸쳐 고른 성장·발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본다.

## (2) 學校教育의 改善에 대한 認識

학교교육의 현실은 학부모가 바라는 기대와 인식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학교교육의 문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개선의 필요성도 시급한 것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 이르러면서 학부모들도 학교교육의 질에 대해서 부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학교교육 개선의 필요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표 IV-12>와 같이 조사했다.

<표 IV-12> 학교교육의 개선에 대한 인식

반응	예			단위:사람수(%)	
	예	모르겠다	아니오	계	비고
어머니학력					
대학이상졸업	116(78.4)	23(15.5)	9(6.1)	148	$\chi^2=28.62$ $df=6$ $p<.00$
고등학교 "	292(59.1)	147(29.8)	55(11.1)	494	
중학교 "	105(56.5)	49(26.3)	32(17.2)	186	
국민학교 "	27(50.0)	18(33.3)	9(16.7)	54	
전체	540(61.2)	237(26.9)	105(11.9)	882 (100)	

<표 IV-12>와 같이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교육의 필요를 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경향이다 ( $p < .001$ ).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3) 學校教育의 불만족스러운 分野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일상적인 학교교육활동을 통해서 느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과 불만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학교의 시설, 교육기자재, 교사의 태도 및 자질, 학교경영, 교육과정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족스러운 분야가 과외학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교사가 다루는 학습내용과 학습방법, 특기신장과 관련된 특별활동의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분야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표 IV-13> 학교교육의 불만족스러운 분야에 대한 인식

반응 지역	단위:사람수(%)				계	비 고
	A	B	C	D		
시	33( 8.6)	200(52.2)	120(31.3)	30( 7.8)	383	$\chi^2=34.80$ $df=6$ $p<.001$
읍소재지	18( 9.0)	117(58.2)	65(32.3)	1( 0.5)	201	
농어촌	30(15.5)	83(43.0)	77(39.9)	3( 1.6)	193	
전 체	8(10.4)	400(51.5)	262(33.7)	34( 4.4)	777 (100)	

- A : 교과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B : 아동 개개인의 학습능력, 흥미, 적성등에 맞는 학습지도가 미흡
- C : 소질및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별활동의 형식적 운영
- D : 기타

<표 IV-13>와 같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분야에 대해 학부

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아동 개인의 학습능력, 흥미, 적성 등에 맞는 학습지도가 미흡'(51.5%), '소질 및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별활동의 형식적 운영'(33.7%), '교과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10.4%)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P < .001$ ).

이와 같은 결과는 학부모들이 현재와 같은 교육여건으로 기본 및 기초학습능력 갖추기, 잠재적능력 개발,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특기교육 등에 대해서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제도 및 교육방법에 의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 3. 學院課外學習 實際 및 그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학교교육의 성취는 학업성취로 대변되고 학업성취는 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취마저도 학교가 기초적인 수준 내지 보다 심화된 수준에서 어느 쪽의 요구도 현실적으로 적절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경험이나 보다 경쟁적으로 성취의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교외학습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학원과외학습이 갖는 현실적인 필요는 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목적은 학부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 학원교육은 학원과목, 수강과목 수, 학원과외 시기와 시간, 경비 등에 있어서 각기 선택의 차이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원과외학습 실제 및 그에 따른 학부모 인식에 대해서 학원과외학습 필요성과 목적, 학원과외학습 실제, 학원과외학습비 부담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 1) 學院課外學習의 必要와 目的

가치관이 다양화하고 또 성취적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학교제도만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전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을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 보고자 하는 학습자와 그 보호자의 학습욕구 또는 교육적 요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학원과의학습이다. 학부모들은 학원과의학습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아 보았다.

### (1) 學院課外學習 必要에 대한 認識

학원과의학습의 긍정적인 측면은 국민의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 보장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과열과외에 의한 불건전성에 있다. 따라서 학원과의학습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사회문제도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학원과의학습은 국민학생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14> 국민학생에게 학원과의학습의 필요에 대한 인식

반응	단위:사람수(%)				계	비고
	매우필요	필요	불필요	모르겠다		
학교소재지						
시	22( 6.2)	303(81.2)	27( 7.2)	20( 5.4)	373	$\chi^2=6.56$ $df=6$ $p>.05$
읍소재지	15( 8.4)	152(82.2)	15( 4.2)	13( 5.2)	195	
농어촌	5( 6.4)	67(78.9)	4(10.5)	1( 4.1)	77	
전체	50( 6.8)	595(81.0)	53( 7.2)	57( 5.0)	735 (100)	

<표 IV-14>와 같이 국민학생의 학원과의학습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거주지가 시인 경우에 읍소재지이거나 농어촌보다 국민학

생에게 학원과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의 학부모 73.8%가 국민학생의 학원과의학습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자료:남정걸외,1993) 비하면 전국 수준보다 14.0%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學院課外學習을 시키는 目的**

학교교육의 첫 단계인 국민학교 과정은 학생의 인간 형성과정에 가장 크게 교육적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이 때에 바르고 튼튼하게 전인적 기초를 다져주는 일은 한 인간 생애의 밑바탕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잠재능력과 특기 신장을 위해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등과 같이 학부모형이 자녀에게 학원과의학습 시키는 목적은 직업별, 어머니 학력별로 학부모 인식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15>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 IV-15> 학원과의학습시키는 목적**

반 응		단위:사람수(%)				계	비 고
		A	B	C	D		
구 분	학 행정·사무직	35(13.5)	105(40.5)	75(29.0)	44(17.0)	259	$\chi^2$ =65.05 df=12 p<.001
	부 생산·근로직	32(16.4)	93(47.7)	56(28.7)	14( 7.2)	195	
	형 서비스직	16(20.8)	43(55.8)	12(15.6)	6( 7.8)	77	
	직업 전문·기술직	4( 5.2)	16(20.8)	24(31.2)	14(18.2)	58	
	자영 판매직	13( 8.9)	78(53.4)	44(30.1)	11( 7.5)	146	



반응		A	B	C	D	계	비고
구분							
어	대졸 이상	10( 7.7)	41(31.5)	49(37.7)	30(23.1)	130	$\chi^2=$
머	고졸 "	58(13.7)	197(46.7)	119(28.2)	48(11.4)	422	44.05
니	중졸 "	23(16.0)	82(56.9)	29(20.1)	10( 6.9)	144	df=9
학력	국졸 "	9(23.1)	15(38.5)	14(35.9)	1( 2.6)	39	p<.001
전	체	100(13.6)	335(45.6)	211(28.7)	89(12.1)	735 (100)	

A : 학업성적을 더 향상 시키기 위해서    B :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C : 잠재능력과 특기신장을 위해서        D :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표 IV-15>와 같이 국민학생에게 학원과외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45.6%)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잠재능력과 특기 신장을 위해서'(28.7%), '학업성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13.8%),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12.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형의 직업에 따라 행정·사무직, 생산·근로직, 자영·판매직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잠재능력과 특기신장을 위해서'이다. 전문·기술직은 '잠재능력과 특기신장을 위해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20.8%)이다. 서비스직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55.8%)이고, 그 다음에 '학업성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20.8%)로 나타났다(p<.001).

어머니 학력에 따라 대학이상 졸업 어머니는 '잠재능력과 특기 신장을 위해서'(37.7%)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31.5%)이다. 고졸이하 모두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잠재능력과 특기 신장을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같이 학부모가 자녀들을 학원과외학습시키는 목적이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서이거나 잠재능력 개발과 특기 신장인 것으로 보아 사회교육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들이 국민학생을 학원과외학습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이장식의 연

구(1992)에 의하면 '학교성적 향상 및 보충' 그리고 '소질과 능력 개발'이라고 했다. 이것과 비교하면, 제주도 학부모들은 '기본적인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와 '잠재능력과 특기신장을 위해서'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것은 학원과의학습에 대해서 부산시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보완·보충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2) 學院課外學習受講 實際

대부분의 국민학생들은 학교교육에서 결핍되기 쉬운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소질과 적성 개발, 특기교육을 위해서 학원과의학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학원과의학습 학습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학원 수강생 수는 물론 학원의 수도 증가 일로에 있어 교육·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원과의학습 실제에 대해서 국민학생의 학원과의학습 수강 유무, 자녀에게 학원과의학습 최초로 시킨 시기, 최초로 수강한 학원과의학습, 학원과의학습 과목 선택, 학원과의학습 소요 시간 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 (1) 國民學生의 學院課外學習 受講 實態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과의학습에 대한 지원 행위는 남보다 한 발 앞서가려는 학부모의 경쟁의식의 발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국민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원과의학습을 수강하고 있는지를 국민학생들의 학원과의학습 실태를 중심으로 국민학생 1인당 평균과의학습 수강 수와 학년별 학원과의학습 과목별 수강 실태에 대해서 <표 IV-16>, <표 IV-17>, <표 IV-18>, <표 IV-19>와 같이 조사했다.

<표 IV-16> 국민학생들의 학원과외 수강 유무

반 응		단위:사람수(%)			비 고
		학원과외자	비학원과외자	계	
구 분	시	373(86.5)	58(13.5)	431	$\chi^2=8.86$
학 교	읍소재지	191(83.0)	39(17.0)	230	$df=2$
	농어촌	171(77.4)	50(22.6)	221	$p<.01$
어머니 학력	대졸 이상	130(87.8)	18(13.2)	148	$\chi^2=13.20$
	고졸 "	422(85.4)	72(14.6)	494	$df=3$
	중졸 "	144(77.4)	42(22.6)	186	$p<.001$
	국졸 "	39(72.2)	15(27.8)	54	
월 평균	50만원 미만	28(66.7)	14(33.3)	42	$\chi^2=25.28$
	50~100만원	195(79.3)	51(20.7)	246	$df=4$
가계 소득	100~150만원	245(81.7)	55(18.3)	300	$p<.001$
	150~200만원	156(88.6)	20(11.4)	176	
	200만원 이상	111(94.1)	7( 5.9)	118	
전 체		735(83.3)	147(16.7)	882 (100)	

<표 IV-16>과 같이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 수강 실태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학원과외자'(83.3%), '비학원과외자'(16.7%)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을 살펴보면 학교소재지에서는 시인 경우 86.5%, 읍소재지 인 경우 83.0%, 농어촌인 경우 77.4%로 나타났다( $P<.01$ ). 어머니 학력에서는 대학이상 졸업인 경우 87.8%,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85.4%, 중학교 졸업인 경우 77.4%, 국민학교 졸업인 경우 72.2%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월평균가계소득에서는 200만원이상인 경우 9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50만원~200만원인 경우 88.6%로 나타났다( $p<.001$ )

특히 1994년 5월1일 현재 제주도 국민학교 총학생수 45,743명(자료:제주도교육청,1994년판 제주도교육통계연보) 가운데 학원과외 수강 학생수를 위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추계하면 38,000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7> 학원과외과목별 학원수강자 비율

학 원	속셈	주산	컴퓨터	미술	서예	음악	피아노	영어
N	240	704	71	72	90	31	357	61
%	13.2	40.3	3.9	3.9	4.9	1.7	19.6	3.3

  

태권도	궁후	합기도	유도	속독	한문	웅변	합계
82	4	9	6	20	8	38	1823
4.5	0.2	0.5	0.3	1.1	0.4	2.1	100

주 : 수강자 수는 연인원수

<표 IV-17>과 같이 학원과외학습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주산(40.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피아노(19.5%), 속셈(13.2%), 서예(4.9%), 태권도(4.5%), 미술(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계열별로 보면 산수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산수계열 53.5%, 음악·피아노 중심의 음악계열 20.2%, 미술·서예 중심의 미술계열 8.8%, 태권도·합기도·궁후·유도 중심의 체육계열 5.5%, 컴퓨터 3.8%, 기타 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지역별 학원과외 수강자 수

학원	지역			계
	시	읍소재지	농어촌	
속셈	90(37.5)	63(26.3)	87(36.3)	240(100)
주산	373(50.8)	191(26.0)	170(23.2)	734(100)
컴퓨터	26(36.6)	25(35.2)	20(28.2)	71(100)
미술	64(88.9)	3( 4.2)	5( 6.9)	72(100)
서예	65(72.2)	23(25.6)	2( 2.2)	90(100)
음악	18(58.1)	7(22.6)	6(19.4)	31(100)
피아노	201(56.2)	102(28.7)	54(15.2)	356(100)

지역 학원	지역			
	시	읍소재지	농어촌	계
영 어	43(70.5)	5( 8.2)	13(26.3)	61(100)
태권도	48(58.5)	18(22.0)	16(19.5)	82(100)
쿵 후	3(75.0)	1(25.0)	.	4(100)
합기도	4(44.4)	3(33.3)	2(22.2)	9(100)
유 도	6(100)	.	.	6(100)
속 독	16(80.0)	3(15.0)	1( 5.0)	20(100)
한 문	6(75.0)	2(25.0)	.	8(100)
웅 변	25(65.8)	11(28.9)	2( 5.3)	38(100)

<표 IV-18>과 같이 지역별로 수강율이 높은 학원들을 살펴보면 시인 경우 주산, 속셈, 미술, 서예, 음악, 영어, 태권도, 유도, 속독, 한문, 웅변 등 전 학원을 끌고루 수강하고 있는 반면에, 읍소재지이거나 농어촌에서는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열에 따른 여러가지 학원들이 도시에 집중되므로 인하여 도시의 학생들은 취미, 적성, 학습능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학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읍소재지이거나 농어촌 등의 학생들은 그 지역에 속셈, 피아노, 컴퓨터 등의 제한된 몇 개의 학원만이 있는 관계로 나타난 현상이라 본다.

<표 IV-19>에 의해서 학년별로 수강비율이 높은 학원을 살펴보면 학년에 관계없이 전학년에 끌고루 수강하고 있는 학원은 주산, 속셈이고, 1,2학년에는 수강율이 높다가 5,6학년에 올라 갈수록 수강율이 떨어지는 학원은 미술, 음악, 피아노, 태권도, 합기도이며, 1,2학년에는 수강율이 낮아졌다가 5,6학년에는 수강율이 높아지는 학원은 컴퓨터, 서예, 영어, 속독으로 나타났다.

<표 IV-19> 학년별 학원과의 수강자 수

단위:학생 수(%)

학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속셈	35(15)	40(17)	35(15)	39(16)	49(20)	42(18)	240(100)
주산	116(16)	121(17)	121(17)	132(18)	124(17)	120(16)	734(100)
컴퓨터	1(1)	2(3)	8(11)	12(17)	20(28)	28(39)	71(100)
미술	18(25)	24(33)	8(11)	13(18)	7(10)	2(3)	72(100)
서예	4(4)	9(10)	15(17)	22(24)	20(22)	20(22)	90(100)
음악	4(13)	8(26)	8(26)	4(13)	5(16)	2(7)	31(100)
피아노	63(18)	76(21)	75(21)	61(17)	51(14)	31(9)	357(100)
영어	3(5)	6(10)	6(10)	9(15)	11(18)	26(43)	61(100)
태권도	19(23)	9(11)	7(9)	17(21)	13(16)	17(21)	82(100)
쿵후	.	3(75)	1(25)	.	.	.	4(100)
합기도	.	3(33)	2(22)	1(11)	2(22)	1(11)	9(100)
유도	1(17)	.	1(17)	1(17)	2(33)	1(17)	6(100)
속독	2(10)	2(10)	3(15)	3(15)	2(15)	8(40)	20(100)
한문	1(13)	2(25)	1(13)	1(13)	3(38)	1(13)	8(100)
응변	9(24)	11(29)	7(18)	7(18)	3(8)	1(3)	38(100)

또,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의 과목수는 학부모의 지역별, 월평균가계소득별, 학생의 학업성적별, 학생의 학년별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20>와 같이 조사했다

<표 IV-20>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의 수강수 비교

수강과목수							단위:사람수(%)	
		1	2	3	4이상	계	평균	비 고
구	분							
학	시	180(48.3)	146(39.1)	33( 8.8)	14( 0.9)	373	1.7	$\chi^2=$
교	읍 소재지	106(55.5)	71(37.2)	13( 6.8)	1( 0.5)	191	1.5	33.85
소재	농어촌	122(71.4)	41(24.0)	8( 4.7)		171	1.3	df=6
지								p<.01
월	50만원 미만	22(78.6)	6(21.4)			28	1.2	$\chi^2=$
평균	50~100만원	130(66.6)	59(30.3)	5( 2.6)	1( 0.5)	195	1.4	67.49
가계	100~150만원	149(58.8)	82(33.5)	15( 6.1)	4( 1.6)	245	1.5	df=28
소득	150~200만원	68(43.6)	66(42.4)	18(11.5)	4( 2.5)	156	1.7	p<.001
	200만원 이상	44(39.6)	45(40.5)	16(14.4)	6( 5.4)	111	1.9	
학생	우 수	132(51.8)	90(35.3)	23( 9.0)	10( 2.9)	255	1.7	$\chi^2=$
의	보 통	271(57.8)	164(35.0)	29( 6.2)	5( 1.1)	469	1.5	15.84
학업	보통이하	5(45.5)	4(36.4)	2(18.2)		11	1.7	df=6
성적								p>.05
학생	1 학년	73(62.4)	37(31.6)	5( 4.3)	2( 1.7)	117	1.5	$\chi^2=$
의	2 "	61(50.4)	45(37.2)	13(10.7)	2( 1.7)	121	1.6	38.91
학년	3 "	67(55.3)	46(38.0)	5( 4.1)	3( 2.5)	121	1.5	df=15
	4 "	74(56.1)	51(38.6)	6( 4.5)	1( 0.8)	132	1.5	p>.05
	5 "	67(54.0)	38(30.6)	16(12.9)	3( 2.4)	124	1.6	
	6 "	66(55.0)	41(34.2)	9( 7.5)	4( 3.3)	120	1.6	
전	체	408(55.5)	258(35.1)	54( 7.4)	15( 2.0)	735	1.6	
						(100)		

<표 IV-20>과 같이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의 수강수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에서 학원과의 수업 과목수 '1과목'( 55.5%), '2과목'(35.1%), '3과목'(7.4%), '4과목 이상'(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개인배경변인별 경향에서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의 과목수를 조

사 비교하면 학교소재지에따라 시인 경우 '1.7'과목으로 읍소재지이거나 농어촌보다 학원과외과목수가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P<.001$ ).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학원과외 과목수가 많이 나타났다( $P<.001$ ).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적별로는 우수인 경우 '1.7'과목, 보통인 경우 '1.5'과목, 보통이하인 경우 '1.7'과목이고, 학생의 학년별로는 2,5,6 학년인 경우 '1.6'과목, 1,3,4학년인 경우 '1.5'과목으로 나타나 학업성과 학원과외과목 수 또는 학년과 학원과외과목 수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외과목 수에 대해서 서울(자료:한국교육신문, "영어-예·체능 조기교육 겹돌아, 1994년 4월 13일)과 본 연구자료와 비교하면 서울은 1.9과목이지만 제주는 1.6과목으로 서울에 비하여 제주도가 학원과외 학습에 있어서 비교적 적게 수강하고 있다.

그리고 1일 평균 5과목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도 제주도 전체에서 0.3%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子女에게 學院課外學習 최초로 시킨 時期

현대사회는 한 시라도 배움의 과정을 갖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기회 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다. 학원과외학습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를 자녀의 학년별, 어머니 학력별, 학부형의 직업별로 알아보는 것은 현재의 학원과외학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표 IV-21>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21> 자녀에게 학원과외를 최초로 시킨 시기

		단위:사람수(%)					비 고
구 분	시 기	유치원	국교1년	국교2년	국교3년 이후	계	
학년	1 학년	91(77.8)	26(22.2)			117	$\chi^2=151.24$ $df=15$ $p<.001$
	2 "	79(65.3)	38(31.4)	3( 2.5)	1( 0.8)	121	
	3 "	65(53.7)	41(33.9)	12( 9.9)	3( 2.5)	121	
	4 "	61(46.2)	46(34.8)	15(11.4)	10( 7.6)	132	
	5 "	41(33.1)	41(33.1)	18(14.5)	24(19.4)	124	
	6 "	38(31.7)	34(28.3)	13(10.8)	35(29.2)	120	
학부 형	행정 사무직	154(59.5)	68(26.3)	18( 6.9)	9( 7.3)	259	$\chi^2=51.48$ $df=12$ $p<.001$
	생산근로직	76(39.0)	61(31.2)	24(12.3)	34(17.4)	195	
	서비스직	38(49.4)	25(32.5)	3( 3.9)	11(14.2)	77	
	전문 기술직	37(63.8)	16(27.6)	3( 5.2)	2( 3.4)	58	
	자영 판매직	70(47.9)	56(38.4)	13( 8.9)	7( 4.8)	146	
어머 니 학력	대학이상졸업	89(68.5)	29(22.3)	6( 4.6)	6( 4.6)	130	$\chi^2=74.23$ $df=9$ $p<.001$
	고등학교 "	227(53.8)	138(22.7)	23( 5.5)	34( 8.1)	422	
	중 학교 "	52(36.1)	45(31.3)	25(17.4)	22(15.3)	144	
	국민학교 "	7(17.9)	14(35.9)	7(17.9)	11(28.2)	39	
전 체		375(51.0)	226(20.7)	61( 8.3)	73( 9.9)	735 (100)	

<표 IV-21>과 같이 국민학생 최초의 학원과외 수강 시기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에서 '유치원'(51.0%), '국교 1학년'(20.7%), '국교 2학년'(8.3%), '국교 3년이후'(9.9%) 순으로 전체의 71.7% 학생이 국교 1년 이전에 학원과외 학습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학년에 따라 고학년 보다 저학년이 최초의 학원과외 학습 시기가 빨라졌다( $p<.001$ ). 학부형 직업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학부모가 타 직종의 학부모보다 유치원 입원 전후부터 학원과외 학습시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p<.001$ ). 어머니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졸업 어머니 보다 대학 이상 졸업

어머니가 국민학교 1학년 이전부터 학원과의 학습을 시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p < .001$ )

이와 같이 국민학교 1학년 이전의 학원과의 경험을 학년별로 분석하면 저학년 96.7%, 중학년 81.0%, 고학년 60.0%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어린이들의 학원과의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특히 최초의 학원과의 학습을 국민학교 1학년 이전 부터 실시한 학생 조사에 대해서 최문선 연구(1988)는 인천시 국민학생의 25.6%이고, 남정걸 외의 연구(1993)는 전국 국민학생의 62.4%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71.7)로 비교할 때 제주도 국민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보다 최초의 학원과의 학습 시기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 (3) 最初로 受講한 學院 系列

학원과의 학습은 교육인구, 교육내용의 다양성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함께 2대 국민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최초의 학원 계열을 알아보는 것은 학원과의 학습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악계열, 미술계열, 체육계열, 컴퓨터, 웅변, 수학계열 등과 같이 최초로 수강한 학원계열은 지역별, 학생의 성별, 어머니 학력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22>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22>과 같이 국민학생이 최초로 수강한 학원계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향은 '음악계열'(37.0%), '미술계열'(30.1%), '수학계열'(23.4%), '체육계열'(7.8%), '컴퓨터'(1.5%), '웅변'(0.3%) 순으로서 음악, 미술의 예능계열이 전체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22> 최초로 수강한 학원 계열

단위:사람수(%)

계열 구분		학원							계	비고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응변	수학			
학교 소재지	시	125(33.5)	160(42.9)	26( 7.0)	1( 0.3)	1( 0.3)	60(16.1)	373	$\chi^2=$	
	읍소재지	90(47.1)	39(20.4)	15( 7.9)	2( 1.0)		45(23.6)	191	94.6	
	농어촌	57(33.3)	22(12.9)	16( 9.4)	8( 4.7)	1( 0.6)	67(39.2)	171	$df=10$ $p<.001$	
학생 성별	남	79(22.8)	116(33.4)	52(15.0)	8( 3.3)	1( 0.3)	91(26.2)	347	$\chi^2=$	
	여	193(49.7)	105(27.1)	5( 1.3)	3( 0.8)	1( 0.3)	81(20.9)	388	87.92 $df=5$ $p<.001$	
학력	대졸이상	59(45.4)	49(37.7)	6( 4.6)	2( 1.5)		14( 8.1)	130	$\chi^2=$	
	머고졸	156(37.0)	144(34.1)	31( 7.3)	5( 1.2)	1( 0.2)	85(20.1)	422	73.09	
	니중졸	48(33.3)	24(16.7)	15(10.4)	1( 0.7)	1( 0.7)	55(38.2)	144	$df=15$	
	학국졸	9(23.1)	4(10.3)	5(12.8)	3( 7.7)		18(46.2)	39	$p<.001$	
전	체	272(37.0)	221(30.1)	57( 7.8)	11( 1.5)	2( 0.3)	172(23.4)	735 (100)		

학부모 개인배경변인별 경향에 의해서 살펴보면 학교 소재지에서는 시지역인 경우 ‘미술계열’, ‘음악계열’ 순이고, 읍소재지인 경우 ‘음악계열’, ‘수학계열’ 순이며, 농어촌인 경우 ‘수학계열’, ‘음악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성별로는 남학생인 경우 ‘미술계열’, ‘수학계열’ 순이고, 여학생인 경우 ‘음악계열’, ‘미술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어머니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음악계열’, ‘미술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국민학생인 자녀에게 최초로 시키는 학원과의 학습은 예

능계열, 수학기열인 것으로 보아 자녀의 잠재능력 개발과 특기 신장에 관심이 매우 높은것으로 생각되며 이와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예능교육을 강화하던지 음악·미술학원의 강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끌어 들여서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본다.

#### (4) 學院課外科目 選擇

학원과외학습은 부모의 과열된 교육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원과외과목 선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는 학원과외학습실태를 파악하는 기본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자녀 스스로,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 부모님과의 합의, 타인의 권유 등과 같은 학원과외과목 선택자는 지역별, 학생의 학년별, 어머니 학력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23>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23> 학원과외과목 선택자

단위:사람수(%)

반 응		자녀 스스로	부모의 일방적 결정	부모와 자녀합의	타인의 권유	계	비 고
구 분	시	53(14.2)	74(19.8)	245(65.7)	1( 0.3)	373	$\chi^2=25.47$
학 교	읍소재지	46(24.1)	15( 7.9)	130(68.1)		191	$df=6$
	농어촌	33(19.3)	24(14.0)	111(64.9)	3( 1.8)	171	$p<.001$
학 년	1 학년	19(16.2)	26(22.2)	72(61.5)		117	$\chi^2=32.18$
	2 "	12( 9.9)	26(21.5)	81(66.9)	2( 1.7)	121	$df=15$
	3 "	23(19.0)	16(13.2)	81(66.9)	1( 0.8)	121	$p<.001$
	4 "	17(12.9)	22(16.7)	93(70.5)		132	
	5 "	29(23.4)	12( 9.7)	82(66.1)	1( 0.5)	124	
	6 "	32(26.7)	11( 9.2)	77(64.2)		20	

반응		자녀 스스로	부모의 일방적 결정	부모와 자녀협의	타인의 권유	계	비고
구분	어머니	21(16.2)	25(19.2)	84(64.6)		130	$\chi^2=35.81$ $df=9$ $p<.001$
	학력	54(12.8)	67(15.9)	298(70.6)	3( 0.7)	422	
	고졸 "	47(32.6)	13( 9.0)	83(57.6)	1( 0.7)	144	
	중졸 "	10(25.6)	8(20.5)	21(53.8)		39	
전	체	132(18.0)	113(15.4)	486(66.1)	4( 0.5)	735 (100)	

<표 IV-23>과 같이 학원과외과목 선택자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협의'(66.1%), '자녀 스스로 결정'(18.0%),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15.4%) 순으로 전체의 81.5%가 학원과외과목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협의'에 대해서 학교소재지에 따라 읍소재지인 경우 6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시인 경우 65.7%, 농어촌인 경우 64.9%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학생의 학년에 따라 4학년이 7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3학년이 각각 66.9%, 5학년인 경우 66.1%, 6학년인 경우 64.2%, 1학년인 경우 61.5%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리고 어머니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7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대학 이상 졸업인 경우 64.6%, 중학교 졸업인 경우 57.6%, 국민학교 졸업인 경우 53.8% 순으로 나타났다( $P<.01$ ).

국민학생의 학원과외과목 선택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협의'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은 학부모 스스로가 학생의 학습권을 그 만큼 보호해주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 (5) 1일 평균 學院課外 受講時間

국민학교의 하루 일과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저학년은 14시까지, 고학년은 16시까지 끝나쳐져 귀가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전후해서 국민학생은 아침 저녁으로 학원과외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학생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학

원과의 학습을 받고 있는지는 학부모의 지역별, 직업별, 가계 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24와 같이 조사했다.

<표 IV-24> 1일 평균 학원과의 수강시간

구분		소요시간	단위:사람수(%)				계	평균	비고
			1	2	3	4이상			
학교 소재지	시		141(37.8)	160(42.9)	64(17.2)	8( 2.1)	373	1.8	$\chi^2=39.11$ $df=6$ $p<.001$
	읍 소재지		104(54.5)	69(36.1)	18( 9.4)		191	1.5	
	농어촌		104(60.8)	55(32.2)	12(37.0)		171	1.5	
학부형 직업	행정·사무직		120(46.3)	101(39.0)	36(13.9)	2( 0.8)	259	1.7	$\chi^2=29.85$ $df=12$ $p<.05$
	생산·근로직		104(53.3)	71(36.4)	19( 9.7)	1( 0.5)	195	1.6	
	서비스직		45(58.4)	25(32.4)	6( 7.8)	1( 1.3)	77	1.5	
	전문·기술직		30(51.8)	22(37.9)	5( 8.6)	1( 1.7)	58	1.6	
	자영·판매직		50(34.2)	65(44.5)	28(19.2)	3( 2.1)	146	1.9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17(60.7)	7(25.0)	4(14.3)		28	1.5	$\chi^2=25.23$ $df=12$ $p<.01$
	50~100만원		107(54.9)	68(34.9)	18( 9.2)	2( 1.0)	195	1.6	
	100~150만원		121(49.4)	93(38.0)	31(12.7)		245	1.6	
	150~200만원		69(44.2)	62(39.7)	22(14.1)	3( 1.9)	156	1.7	
	200만원 이상		35(31.5)	54(48.6)	19(17.1)	3( 2.7)	111	1.9	
전체			349(47.5)	284(38.6)	94(12.8)	8( 1.1)	735 (100)	1.7	

<표 IV-24와 같이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소요시간 1일 평균 '1시간'(47.5%), '2시간'(38.6%), '3시간'(12.8%), '4시간'(1.1%) 순으로 전체의 86.1%가 '1~2시간' 정도 즉 전체 평균 '1.7시간'(1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학교소재지에 따라 시인 경우 '1.8'시간, 읍소재지와 농어촌인 경우 '1.5'시간으로 나타났다( $P<.001$ ). 학부형 직업별에 따라 자영·판매직인 경우 '1.9'시간, 행정·사무직인 경우 '1.7'시간, 생산·근로직과 전문·기술직인 경우 '1.6'시간, 서비스직인 경우 '1.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P<.05$ ). 월평균가계소득별로

는 200만원 이상인 경우 '1.9'시간으로 가장 높고, 50만원 미만인 경우 1.5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 < .01$ ).

국민학생이 학원과의 학습을 위하여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는 시지역, 학부형 직업에서는 자영·판매직, 월평균 가계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과의 학습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學院課外學習費 負擔

국민학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육비 중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학원과의 비용이다. 학원과의 학습비는 학원수강료를 포함해서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비용의 과다지출은 과열 과외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제기되어 왔다. 즉 과거의 선례만 보더라도 과외비용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가정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과외에 대한 사회계층간 위화감이 커져 과외에 대한 비판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학원과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국민학생 1인당 학원과의 학습비 부담 규모, 학원과의 학습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학원과의 학습비 가계 부담에 대한 인식, 자녀의 학원과의 학습 지속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 (1) 國民學生 1人當 學院課外學習費 負擔 規模

교육비의 사적 부담은 교육의 수요자인 개인이 교육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만큼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교육효과의 개인적 측면이 강조되어 교육의 수익자를 개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나타난 제도이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보다 좋은 직장 또는 보다 좋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현재 지불하는 교육비용보다 교육을 받은 후 기대되는 수익이 크다면 개인은 교육을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대하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 1인당 가장 적

절한 학원과의 학습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학부모, 교육행정가, 교사, 학원강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민학생 1인을 위한 학원과의 학습비로 1년 동안 지출되는 비용은 학부모의 월평균가계소득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표 IV-25>와 같이 조사했다.

<표 IV-25> 1인당 연간 학원과의 학습비 소요액

과외비 가계소득	단위:사람수(%)				계	비 고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1(75.0)	7(25.0)			28	$\chi^2=$
50~100만원	121(62.1)	66(33.8)	7( 3.6)	1( 0.5)	195	97.01
100~150만원	137(55.9)	88(35.9)	16( 6.5)	4( 1.6)	245	$df=12$
150~200만원	59(37.8)	75(48.1)	17(10.9)	5( 3.2)	156	$p<.001$
200만원 이상	31(27.9)	44(39.6)	22(19.8)	14(12.6)	111	
전 체	36(50.2)	28(38.1)	6( 8.4)	2( 3.3)	735 (100)	

<표 IV-25>와 같이 국민학생 1인당 연간 학원과의 학습비가 연간 '50만원 미만'이라고 한 사람이 5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38.1%), '100만원~150만원'(8.4%), '150만원 이상'(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전체 평균 1인당 연간 학원과의 학습비를 추정해 보면 약 574,000 원이고, 제주도 전체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교육비를 연간 218억여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것을 지역별, 어머니 학력별로 산출해보면 <표 IV-26>과 <표 IV-27>와 같다.



<표 IV-26> 지역별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외학습비 추정액

지역별	단위:원		
	시	읍.면 소재지	농 어 촌 비 고
연 학원과외비	668,230	506,540	442,980
월 학원과외비	74,019	42,378	36,915

<표 IV-27> 어머니 학력별 국민학생 1인당 평균 학원과외학습비 추정액  
단위 :원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고졸	중졸	국졸
연 학원 과외비	692,300	578,200	569,440	467,950
월 학원 과외비	57,691	48,183	47,453	38,995

주: 제주도 국민학생의 학원과외교육비=학원과외 총학생수(38,000여명)\*1인당 평균과외교육비 (574,000원)=218억1200만원

<표 IV-26>와 같이 학교 소재지에 따라 시인 경우 연 66만 8,230원(월 74,019원), 읍소재지인 경우 연 50만 6,540원(월 42,378원), 농어촌인 경우 연 44만 2,980원(월 38,915원) 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IV-27>과 같이 어머니 학력에 따라 대학이상 졸업인 경우 연 69만 2,300원(월 7,891원),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연 57만 8,200원(월 48,183원), 중학교 졸업인 경우 연 56만 9,440원(월 47,453원), 국민학교 졸업인 경우 연 46만 7,950원(월 38,995원)순으로 나타났다(P<.001).

또, 국민학생의 학원과외비 연간 지출액에 대해서 서울지역(자료:중앙일보,1994년 10월 7일)과 본 연구자료와 비교하면 서울은 연 330만원(월 27만5천원)인데 비하여 제주도는 연 57만 4천원(월 47,800원)으로 서울의 17%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보아 학원과외학습비는 학원과외학습과목 수 또는 학원과외 시간 수와 비례하며, 지출 경향은 농어촌보다 도시에서, 어머니 학력이 낮은 가정보다는 높은 가정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의 국민학생들은 서울에 비하여 저렴한 경비로 학원과외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學院課外學習費가 家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認識

교육을 통해 모든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견하고 이에 기초해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만큼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이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이 문제시 되는 것은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학원에 보냄으로써 교육비를 부담한 과외비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학부형 직업별, 어머니 학력별, 월평균가계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표 IV-28>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28>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구 분		반 응	단위:사람수(%)				계	비 고
			큰부담 준다	조금부담 준다	별로부담 끼지못한다	전혀부담 없다		
학부형 직업	행정·사무직	25( 8.1)	248(80.5)	27( 8.8)	8( 2.6)	308	$\chi^2=$	
	생산·근로직	20( 8.2)	184(75.0)	28(11.4)	13( 5.3)	245	29.22	
	서비스직	4( 4.2)	80(83.3)	9( 9.4)	3( 3.1)	96	df=12	
	전문·기술직	3( 4.8)	51(81.0)	8(12.6)	1( 1.6)	63	p<.05	
	자영·판매직	10( 5.9)	137(80.6)	15( 8.8)	8( 4.7)	170		
어머니 학력	대학이상졸업	22(16.9)	71(54.6)	33(25.4)	4( 3.1)	130	$\chi^2=$	
	고등학교 "	95(22.5)	262(62.1)	60(14.2)	5( 1.2)	422	22.16	
	중 학교 "	29(20.1)	92(63.9)	23(16.0)		144	df=9	
	국민학교 "	2( 5.1)	28(71.8)	9(23.1)		39	p<.01	
월 평균 가계 소득	50만원 미만	5(17.9)	20(71.4)	3(10.7)		28	$\chi^2=$	
	50~100만원	56(28.7)	120(61.5)	19( 9.7)		195	49.08	
	100~150만원	42(17.1)	162(66.1)	40(16.3)	1( 0.4)	245	df=12	
	150~200만원	30(19.2)	92(59.0)	32(20.5)	2( 1.3)	156	p<.00	
	200만원 이상	15(13.5)	59(53.2)	31(27.9)	6( 5.4)	111		
전	체	148(20.1)	453(61.6)	125(17.0)	9( 1.2)	735 (100)		

<표 IV-28>과 같이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조금 부담을 준다'(61.6%), '큰 부담을 준다'(20.1%), '별로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17.0%), '전혀 부담이 없다'(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부담이 있다와 없지로 구분지어 비교하면 학원과외비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가 전체의 81.7%로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18.2%)보다 많이 나타났다.

'큰 부담을 준다'에 대해서 학부모의 직업별로 보면 생산·근로직과 행정·사무직에서( $p<.05$ ), 어머니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p<.01$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소득에 비해 학원과외학습비 지출이 높은 것은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교육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學院課外學習費 家計 負擔에 對한 認識

학원과외학습은 국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과외비 지출은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 심화의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학원과외학습비에 대해서 학부모가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비용, 학원과외학습비 부담은 자녀를 위한 투자이므로 많을수록 좋다, 부모의 능력에 맞춰쓰면 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낭비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어쩔수 없는 비용이다 등과 같은 학부모의 인식은 어머니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표 IV-29>와 같이 조사했다.

<표 IV-29>과 같이 학원과외학습비의 가계 부담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80.5%)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어머니가 대학 이상의 졸업 어머니 또는 중학교 이하의 졸업 어머니보다 학원과외학습비의 가계 부담에 대하여 '어쩔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p<.001$ )

<표 IV-29> 학원과외학습비의 가계 부담에 대한 인식

반응					단위:사람수(%)	
	A	B	C	D	계	비 고
어머니 학력						
대학이상 졸업	4( 4.3)	2( 2.2)	13(14.0)	74(79.6)	93	$\chi^2=15.26$
고등학교 "	8( 2.2)	5( 1.4)	49(13.7)	295(13.7)	357	$df=9$
중 학교 "	7( 5.8)	4( 3.3)	14(11.6)	96(11.6)	121	$p<.001$
국민학교 "	4(13.5)	1( 3.3)	6(20.0)	19(20.0)	30	
전 체	23( 3.8)	12( 2.0)	82(13.6)	484(13.6)	601 (100)	

- A : 학부모가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비용
- B : 과외비 지출은 자녀를 위한 투자이므로 많을수록 좋다
- C : 부모의 능력에 맞춰 쓰면 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낭비이다
- D : 자녀교육을 위한 어쩔수 없는 비용이다

이것으로 보아 학원과외학습비 가계 부담에 대해서 어머니학력이 고졸 출신인 경우 다른 변인에 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 (4) 子女의 學院課外學習 持續與否에 대한 認識

앞에서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영향이 미친다고 응답한 학부모 601명에게 자녀의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원과외학습을 계속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 소득별로 다르게 나타날것으로 보아 <표 IV-30>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30>과 같이 현재 학원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들 대부분은 학원과외수업 지속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예'에 대해서 응답한 학부모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인배경변인별 경향을 살펴보면 학교소재지에 따라 읍소재지 학부모는 시 또는 농·어촌의 학부모보다 학원과외수업을 지속하겠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p<.01$ ).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가계수입이 낮은 가정보다 가계수입이 높은가정에서 학원과외학습수업 지속 여

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p < .01$ )

<표 IV-30> 자녀의 학원과외수업 지속여부에 대한 인식

반 응		단위:사람수(%)				비 고
		예	아니오	모르겠다	계	
구 분						
학교	시	238(76.8)	26( 8.4)	46(14.8)	310	$\chi^2=2.72$
소재	읍 소재지	112(78.9)	8( 5.6)	22(15.5)	142	$df=4$
지	농 어 촌	109(73.2)	16(10.7)	24(16.1)	149	$p < .01$
월	50만원 미만	15(60.0)	2( 8.0)	8(32.0)	25	$\chi^2=19.36$
평균	50~100만원	127(72.2)	18(10.2)	31(17.6)	176	$df=8$
가계	100~150만원	152(74.5)	16( 7.8)	36(17.6)	204	$p < .01$
소득	150~200만원	98(80.3)	12( 9.8)	12( 9.8)	122	
	200만원 이상	67(90.5)	2( 2.7)	5( 6.8)	74	
전	체	459(76.4)	50( 8.3)	92(15.3)	601 (100)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녀에게 소질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초 및 기본학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학원과외학습을 지속시키겠다는 학부모의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며, 특히 시에 거주하는 국민학생이거나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학원과외학습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 147명의 학부모에게 '자녀가 원한다면 학원과외학습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 IV-31>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31> 학원과외학습 재개여부에 대한 인식

반응		단위:사람수(%)			비고
		예	모르겠다	아니오	
구분	시	47(81.0)	3( 5.2)	8(13.8)	58 $\chi^2=16.12$
학교	읍 소재지	28(71.8)	3( 7.7)	8(20.5)	39 $df=4$
소재지	농어촌	33(66.0)	14(28.0)	3( 6.0)	50 $p<.001$
월	50만원 미만	7 (50.0)	5(35.7)	2(14.3)	14 $\chi^2=20.57$
평균	50~100만원	39(76.5)	10(19.6)	2( 3.9)	51 $df=8$
가계	100~150만원	40(72.7)	3( 5.5)	12(21.8)	55 $p<.001$
소득	150~200만원	17(85.0)	2(10.0)	1( 5.0)	20
	200만원 이상	5(71.4)		2(28.6)	7
전체		108(73.5)	20(13.6)	19(12.9)	147 (100)

<표 IV-31>과 같이 '자녀에게 학원과외학습을 다시 할 것인가?'의 여부유무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예'(73.5%), '모르겠다'(13.6%), '아니오'(12.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한다면 학원과외학습을 재개하겠다는 학부모의 개인배경 변인별 경향을 살펴보면 학교 소재지에서는 농어촌보다 읍소재지, 읍소재지 보다는 시지역의 학부모들이 많이 나타났다( $p<.001$ ). 월평균가계소득에서는 150만원~200만원(85.0%) 학부모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만원~100만원(76.5%), 100만원~150만원(7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이와 같이 국민학생 또는 학부모의 사정에 의하여 현재 학원과외학습을 받고 있지 않다 하여도 언제든지 여건이 조성되기만 한다면 학원과외를 다시 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의 학부모 그리고 중상층의 학부모들 가운데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 4. 學院課外學習 效果와 問題에 대한 學父母 認識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원과의 학습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들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학교교육과의 보완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민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기초적 내지는 조화적 필요가 크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처럼 진학과 결부된 긴박성은 그리 크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달리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른 학원과의 성과와 그 혜택에 대해 느끼는 인식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학원과의는 국민학교 시기부터 중요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교육활동인 만큼 그에 따른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인식 및 과외학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원과의 학습의 효과와 태도에 대하여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의 관계, 학원과의 학습 성과와 과제 등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 1) 學校教育과 學院課外學習의 關係

학원들은 국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과제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욕구의 촉진제의 기능을 담당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국가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 차이점에 대한 인식, 예·체능에 대한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 인식, 학원강사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1) 學校教育과 學院課外學習 差異에 대한 認識

사람들은 학원과외학습과 정규 학교교육에 대해서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육제도와 조건 및 교육상황은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의 차이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학부형 직업별, 어머니 학력별, 월평균 가계소득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32>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 IV-32>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의 차이

응 구 분		단위:사람수(%)				비 고
		예	아니오	모르겠다	계	
학부 형 직업	행정·사무직	184(71.0)	57(22.0)	18( 7.0)	259	$\chi^2=33.62$ $df=8$ $p<.001$
	생산·근로직	106(54.4)	51(26.2)	38(19.5)	195	
	서비스직	50(64.9)	21(27.3)	6( 7.8)	77	
	전문·기술직	43(74.1)	8(13.8)	7(12.1)	58	
	자영·판매직	88(60.3)	36(24.7)	22(15.0)	146	
어머 니 학력	대학이상졸업	100(76.9)	17(13.1)	13(10.0)	130	$\chi^2=34.30$ $df=6$ $p<.00$
	고등학교 "	276(65.4)	102(24.2)	44(10.4)	422	
	중 학교 "	80(55.6)	43(29.9)	21(14.6)	144	
	국민학교 "	15(38.5)	11(28.2)	13(33.3)	39	
월 평균 가계 소득	50만원 미만	15(53.6)	4(14.3)	9(32.1)	28	$\chi^2=24.33$ $df=8$ $p<.00$
	50~100만원	116(59.5)	57(29.2)	22(11.3)	195	
	100~150만원	160(65.3)	49(20.0)	36(14.7)	245	
	150~200만원	97(62.2)	44(28.2)	15( 9.6)	156	
	200만원 이상	83(74.8)	19(17.1)	9( 8.1)	111	
전 체		471(64.1)	173(23.5)	91(12.4)	735 (100)	



<표 IV-32>와 같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의 차이 정도에 대한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은 '예'(64.1%), '모르겠다'(23.5%), '아니오'(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들을 살펴보면 학부형 직업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학부모가 타 직종의 학부모보다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의 비교에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그리고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 어머니 학력이 높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P < .001$ ).

이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의 비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기술직의 학부모, 어머니 학력이 대학 이상 졸업 그리고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은 차이가 있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2) 學院課外學習 質에 대한 認識

학원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및 지적 발달 뿐만아니라 학교가 미처 수행할 수 없는 교육기능을 학원이 효율적으로 대행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교육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 모두가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 중에서 어느 교육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교과내용과 수준, 아동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한 학습방법, 다양한 학습자료 활용, 소질 및 잠재능력 신장 등의 범위에서 비교한 결과 <표 IV-33>과 같다.

<표 IV-33>과 같이 교과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학교교육이 잘한다'((56.7%), '학원과의 학습이 잘한다'(23.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한 학습방법에서는 '학원과의 학습이 잘한다'(45.3%), '학교교육이 잘한다'(33.5%)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학습자료 활용에서는 '학교교육이 잘한다'(51.5%), '학원과의 학습이 잘한다'(28.3%) 순으로 나타났다. 소질 및 잠재능력

에서는 '학원과의 학습이 잘한다'(63.7%), '학교교육이 잘한다'(2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3> 학교와 학원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반 응 구 분	반 응			계
	학교교육이 잘한다	학원과의 교육잘한다	별차이 없다	
교과 내용과 수준	365(56.7)	144(23.3)	135(21.0)	644
아동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한 학습방법	216(33.5)	292(45.3)	136(21.1)	644
다양한 학습자료 활용	338(51.5)	182(28.3)	124(19.3)	644
소질 및 잠재능력 신장	133(20.7)	410(63.7)	101(15.7)	644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체능교육만을 두고 생각할 때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이 다른점 비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비교에서 학교교육이 잘하는 분야는 '교과내용과 수준'과 '다양한 학습자료 활용'이고, 학원과의 학습이 잘하는 분야는 '아동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한 학습방법'과 '소질 및 잠재능력 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표 IV-33>과 같은 결과는 남정걸외 연구(1993)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 (3) 學院講師 資質에 대한 認識

학원강사는 학생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의 독특한 개성과 잠재능력을 길러주면서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와 함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학원강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표 IV-34>와 같이 조사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RR 86-15)와 비교하였다.

<표IV-34> 교사와 학원강사 자질 비교

연구자	대상	구분				단위:%	
			높다(3점)	보통(2점)	낮다(1점)	계	환산점
연구자	학원강사	전문지식	21.0	72.9	6.1	100	2.15
		지도열의	20.3	72.0	7.8	100	2.11
한국교육	교사	전문지식	51.5	42.5	6.1	100	2.57
개발원		지도열의	45.6	42.7	11.7	100	2.33

<표 IV-34>와 같이 교사와 학원강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영역별 비율에 높다 3점, 보통 2점, 낮다 1점을 대입하여 환산점을 계산하면 학원강사는 전문지식 '2.15'점과 지도열의 '2.11'점이고, 교사는 전문지식 '2.57'점과 지도열의 '2.33'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학원강사와 교사(KEDI의 연구 자료)의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약 0.32정도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학원강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문지식과 지도열의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여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 2) 學院課外學習 成果와 課題

지금까지 학원과외학습은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발전되었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학력이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지대한 요인과 학력 향상의 욕구를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게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원과외학습 성과와 과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대해서 학원과외교육으로부터 얻은 교육적 효과와 학원과외학습 때문에 생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1) 學院課外受講에 대한 效果

학력의 가치가 학교 안팎에서 지나치게 작용하고 학습자의 교육적 욕구를 학교에서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까닭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하여 학원과외학습에 기대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는 실정이다.

자녀가 학원과외를 통해서 얻는 교육적 혜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지역별, 학생의 학년별, 어머니 학력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35>와 같이 조사했다.

<표 IV-35> 학원과외수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사람 수(%)

반응		A	B	C	D	E	F	G	H	I
학교 소재지	시	58.0	36.2	30.0	34.3	12.8	10.1	22.3	51.2	4.6
	읍소재지	66.1	47.6	29.6	32.8	19.6	22.2	31.7	54.0	0.5
	농어촌	65.9	59.3	27.5	28.1	18.0	29.3	37.7	36.5	0
학생의 학년	1학년	64.3	42.6	36.5	34.8	12.2	20.9	28.7	36.5	2.6
	2 "	65.5	37.0	26.9	36.7	11.8	16.0	29.4	49.6	2.5
	3 "	59.2	40.0	34.2	37.5	19.2	15.0	31.7	52.5	1.7
	4 "	56.2	46.9	24.6	29.2	11.5	15.4	25.4	58.5	3.8
	5 "	64.2	48.0	30.9	30.9	19.5	18.7	31.7	48.0	3.3
	6 "	62.9	52.6	23.3	24.1	20.7	20.7	23.3	44.8	2.5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62.0	28.7	28.7	42.6	10.1	8.5	29.5	58.9	5.4
	고졸 "	62.1	43.9	31.1	34.0	17.2	17.7	26.2	49.3	2.7
	중졸 "	62.2	57.3	28.0	23.1	15.4	23.8	33.6	41.3	0
	국졸 "	59.0	56.4	17.9	17.9	20.5	25.6	28.2	33.3	0
전 체 평 균		62.0	44.5	29.3	32.5	15.8	17.7	28.4	48.5	2.5

- A: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B: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C: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다          D: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E:지도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F:공부하는 태도가 좋았다  
 G:집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H:예체능등의 소질과 잠재능력이 개발되었다    I:기타

<표 IV-35>와 같이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으로부터 비교적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62.0%), '예·체능등의 소질과 잠재능력이 개발되었다'(48.5%),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다'(44.5%) 등에 비교적 많이 반응하여 여러가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공부하는 태도가 좋아졌다' 등 자녀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을 살펴보면 학교소재지에 따라 시 또는 읍소재지에서는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예·체능등의 소질과 잠재능력이 개발되었다' 등의 순인데 반하여, 농어촌에서는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학생의 학년에 따라 2~5학년의 학부모는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예·체능 등의 소질과 잠재능력이 개발되었다' 등의 순인데 반하여 1학년과 6학년의 학부모는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 어머니들은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예·체능등의 소질과 잠재능력이 개발되었다' 순인데 반하여 중졸 이하의 학부모들은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학원과외학습은 학교교육을 보완·보충해주는 일 이외에 학교 교육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 예·체능의 소질 및 잠재능력을 개발해 주는 일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교육 수준 향상 및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學院課外學習 生活相의 問題

학원과외학습은 학교에서 추구할 수 없고, 학교 선생님께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지만 자녀의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비와 연관지어 볼 때 부정적인 면도 적지않게 지닌것으로 본다.

학교공부에 따른 예습·복습시간 부족,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 자녀의

건강, 잘못된 친구를 사귄다 봐 등과 같이 자녀에게 학원과외학습을 시키면서 느끼는 학생 생활상의 애로점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지역별, 어머니 학력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36>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36> 학원과외학습에 따른 자녀교육 애로점

반응		단위:사람수(%)					비고
		A	B	C	D	계	
구분	학교	149(39.9)	102(27.3)	57(15.3)	65(17.4)	373	$\chi^2=5.13$
소재지	읍 소재지	72(37.7)	66(34.6)	30(15.7)	23(12.0)	191	$df=6$
	농어촌	66(38.6)	54(31.6)	27(15.8)	24(14.0)	171	$p>.05$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53(40.8)	41(31.5)	21(16.2)	15(11.5)	130	$\chi^2=6.48$
	고졸 "	165(39.1)	119(28.2)	72(17.1)	66(15.6)	422	$df=9$
	중졸 "	56(38.9)	47(32.6)	17(11.8)	24(16.7)	144	$p>.05$
	국졸 "	13(33.3)	15(38.5)	4(10.3)	7(17.9)	39	
전체		287(39.0)	222(30.2)	114(15.5)	112(15.2)	735 (100)	

A : 학교공부에 따른 예습·복습시간 부족  
C : 자녀의 건강

B :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  
D : 잘못된 친구를 사귄다 봐?

<표 IV-36>과 같이 학원과외학습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학교공부에 따른 예습·복습 시간 부족'(39.0%)이 가장 많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30.2%), '자녀의 건강'(15.5%), '잘못된 친구를 사귄다 봐'(15.2%) 등도 나타나 그 성과 못지않게 잠재된 문제도 적지않은 것으로 본다.

학부모의 개인배경 변인별 경향을 살펴보면 시지역의 학부모가 농어촌이나 읍소재지 학부모보다 학원과외학습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학교공부에 따른 예습·복습시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별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졸업 어머니 보다 대학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공부에 따른 예습·복습 시간 부족'을 학원과외학습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는 인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의 역기능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학교공부에 따른 연습·복습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지나친 학원과외공부가 오히려 자녀의 학교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취, 학습능력, 과외시간, 과외과목 등을 고려한 학원과외학습이 유목적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녀는 학습과 생활의 기초능력이 신장되고 학원과외학습은 제 2의 국민교육기관으로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 (3) 바람직한 學院課外學習 方向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교육만이 교육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사람들은 형식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에만 매력을 느끼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학교교육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게 되어 학원과외학습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학원과외학습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학원과외학습은 학교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원과외학습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은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등과 같이 건전한 학원과외학습 풍토조성을 위한 학부모의 바람직한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학부형 직업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 <표 IV-37>과 같이 조사했다.

<표 IV-37>과 같이 바람직한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전체적인 경향에서 '학원과외학습은 학교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76.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은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발전'(18.8%), '학교교육은 학원과외학습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7> 바람직한 학원과의 학습 방향에 대한 인식

반응 직업	단위:사람수(%)				비고
	A	B	C	계	
행정·사무직	204(78.8)	9( 3.5)	46(17.8)	259	$\chi^2=21.96$ $df=8$ $p<.05$
생산·근로직	147(75.4)	8( 4.1)	40(20.5)	195	
서비스직	65(84.4)	4( 5.2)	8(10.4)	77	
전문·기술직	41(70.7)	2( 3.4)	15(25.9)	58	
자영·판매직	107(73.3)	10( 6.8)	29(19.9)	146	
전체	564(76.7)	33( 4.5)	138(18.8)	735 (100)	

A : 학원과의 학습은 학교과의 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해야 한다

B : 학교교육은 학원과의 학습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해야 한다

C :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은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학원과의 학습은 학교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해야 한다’를 중심으로 학부형의 직업에 따라 보면 서비스직(84.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직(78.8%), 생산·근로직(75.4%), 자영·판매직(73.3%), 전문·기술직(70.7%) 순으로 나타났다( $p<.05$ ).

이것으로 보아 학부모들은 바람직한 학원과의 학습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보완·보충해야 한다’는 경향이 서비스직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반면에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은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 IV. 要約 및 結論

### 1. 要約

본 연구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학원과의학습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국민학생의 학업결손을 보완·보충하는 측면 못지않게 예·체능 등의 기능 신장과 잠재능력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원과의학습의 실제 및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의있는 일이라 본다. 이러한 일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원과의학습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리라 생각하면서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보완적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른 본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다
- 2) 자녀의 학원교육 실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학원과의학습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3) 학원과의학습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국민학생 학원과의학습의 실제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1.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1)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 2)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지도하고 있는가?

2.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1)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2)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길러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3. 국민학생의 학원과의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 1)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원과의학습을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시키고 있는가?
  - 2)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과의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는가?
  - 3)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을 느끼면서 자녀들을 학원과의학습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4.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원과의학습에 대한 문제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1)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학원과의학습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가?
  - 2) 학부모들은 학원과의학습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제주도내 13개 국민학교 학생의 어머니 930명을 시, 읍소재지, 농어촌으로 나누어 유층무선표집하였다. 199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질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표집의 크기는 882명이다. 그 결과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문항별 반응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낸 후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 1) 教育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 (1) 子女教育에 대한 關心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대되는 인간으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51.4%)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39.2%),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6.1%),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3.3%)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p < .05$ ).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79.4%),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해주는 일' (9.9%), '공부 열심히 하여 학업성적 올라가도록 보살펴 주는 일'(7.9%), '여러가지 재주를 지니도록 도와주는 일'(3.7%) 순으로 학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국가주의 또는 봉사주의 가치관 보다는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길러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子女의 進路

학부모들은 개인의 성공요인으로 '가정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교육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p < .001$ ). 그리고 자녀의 학력에 대해서 전체의 96.4% 학부모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p < .001$ ). 보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보가 날로 늘어나므로'(43.1%)와 '직업 선택에 유리하므로'(34.7%) 등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p < .001$ ).

학력에 대해서 어머니 학력이나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이나 전인적 성장 측면에서 보고 있는 반면에 어머니 학력 또는 월평균가계소득이 낮은 경우에 수단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 2) 學校教育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 (1) 子女의 學業成積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보통'(65.3%), '우수'(32.9%), '보통이하'(1.8%)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므로'(57.4%)가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로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하여'(19.8%) 등도 적지않게 제기하고 있다( $p < .001$ ). 자녀의 특기 신장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소질과 적성'(70.2%)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열과 학원과의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p < .001$ ).

도시지역의 학부모일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2) 學校教育 活動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우선 '학교는 어떤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40.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22.0%),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20.3%),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17.0%) 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국민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조화적이며 착한 인간을 기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해서 '예'(61.2%), '모르겠다'(26.9%), '아니오'(11.9%) 순으로 나타나 학교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보다 많이 반응하였다( $p < .001$ ). 이러한 반응은 학교교육의 내용면이나 성과면에서 불만족스러운 분야로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학교에서 '아동 개개인의 학습능력, 흥미, 적성 등에

맞는 학습지도가 미흡'(51.5%), '소질 및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별활동의 형식적 운영'(33.7%), '교과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10.4%) 등과 같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p < .001$ ).

학부모들은 현재와 같은 교육 여건으로서는 기본 및 기초학습능력 갖추기, 잠재능력 개발,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특기교육 등에 대해서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제도 및 교육방법에 의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學院課外學習 實際 및 그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 (1) 學院課外學習 必要와 目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에 대해서 '필요하다'(81.0%)고 보고 있으며 불필요하다거나 모르겠다는 것은 10%미만에 불과하다( $p > .05$ ). 현실적으로 학원과외학습에 따른 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여도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45.6%), '잠재능력과 특기신장을 위해서'(28.0%),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13.6%),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12.1%) 등과 같이 학부모의 학원과외학습 목적 의식이 매우 다양하고 건전하다( $p < .001$ ).

이것으로 보아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은 상급학교 입시를 의식한다든지 또는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다는 것이 못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學院課外學習 實態

국민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원과외학습을 수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994년 5월 1일 현재 제주도 국민학생 전체의 83.3%가 학원과외학습을 받고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제주도 국민학생 전체 학원과외 수강자 수는 38,000여명으

로 추정할 수 있다.

학원 수강자를 학원계열별로 보면 산수계열 53.5%, 음악계열 20.2%, 미술계열 8.8%, 체육계열 5.5%, 컴퓨터 3.8%, 기타 8.2%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지역별로 보면 시인 경우 전과목 골고루 수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읍소재지 또는 농어촌인 경우 속셈, 피아노, 컴퓨터 중심으로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수강율이 높은 학원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 골고루 수강하고 있는 학원은 주산, 속셈이고, 1,2학년에는 수강율이 높다가 5,6학년에 올라갈수록 수강율이 떨어지는 학원은 미술, 음악, 피아노, 태권도, 합기도이며, 1,2학년에는 수강율이 낮아졌다가 5,6학년에는 수강율이 높아지는 학원은 컴퓨터, 서예, 영어, 속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학원과의과목 수는 1.6과목으로 조사되었다( $p<.001$ ). 이것을 서울지역과 비교할 때 제주도는 학원수강비율에서 5.7%(서울:89.0%), 평균학원과의과목 수에서 0.3과목(서울:1.9과목)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일 평균 5과목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도 제주도 전체의 0.3%로 나타났다.

국민학생이 최초의 학원과의 수강 시기는 유치원 때 51.0%, 국민학교 1학년 때 20.7%, 국민학교 2학년 때 8.3% 순으로 국민학생 전체의 71.7%가 국민학교 1학년 이전부터 학원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p<.001$ ), 최초로 수강한 학원계열은 예능계열과 수학계열이 대부분이다( $p<.001$ ). 1일 평균 학원과의 소요시간으로는 전체의 86.1%가 2시간 미만이지만 3시간 이상(13.9%)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p<.001$ ).

### (3) 學院課外學習費 負擔 規模

국민학생 1인당 평균 연간 학원과의학습비는 57만4천원 (월평균학원과의교육비 47,830원)으로 서울(연 330만원)에 비교해서 보면 소요경비가 상당히 저렴한 경비로 학원과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원과의학습비가 가계 지출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녀에게 소질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초 및 기본학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학원과의 학습을 지속시키겠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p < .01$ ).

#### 4) 學院課外學習 效果와 問題에 대한 學父母의 認識

##### (1) 學校教育과 學院課外學習의 關係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의 비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64.1%)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23.5%), '아니오'(2.4%)도 상당수 나타났다( $p < .001$ ). 예·체능교육에서 한정하여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을 비교할 때 학교교육은 교육내용과 수준 및 자료 활용면에서, 학원과의 학습은 학습방법과 소질 및 잠재능력 신장 면에서 학부모들로 부터 신뢰받고 있으며 그 질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학원강사들은 전문지식과 지도열의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여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전문·기술직의 학부모, 어머니 학력과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는 학교교육과 학원과의 학습 차이에 대해서는 이를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學院課外學習 成果와 課題

학부모들은 학원과의 학습으로부터 비교적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62.0%), '예·체능등의 소질과 잠재능력이 개발되었다'(48.5%),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44.5%) 등에 비교적 많이 반응하여 여러가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공부하는 태도가 좋아졌다' 등 자녀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원과의 학습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학교공부에 따른 예습·

복습 시간 부족(39.0%)이 가장 많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30.2%), '자녀의 건강'(15.5%), '잘못된 친구를 사귄다' (15.2%) 등도 나타나 그 성과 못지않게 잠재된 문제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학원과외학습은 '학교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해야 한다'(76.7%)라고 응답하였으나 그 반면에 '학교교육과 학원과외학습은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18.8%)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은 학교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만큼 학원과외학습의 문제는 학교교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結 論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은 학교이외의 수업을 통하여 학습결손을 보완·보충해 주고 예·체능등의 기능 신장과 잠재능력을 개발해주는 데 그 교육적 의의가 크다.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하여 자녀들을 학원과외학습시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에 따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학원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교육을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장보다는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경제적 부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도구적 교육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미래사회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아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지적인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도덕적 성장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므로써 그 반응이 일관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 인식이나 지향의 불일치는 학교교육을 비롯한 자녀들의 과외학습에 여러가지로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이 잠재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그 활동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학생의 과외가 과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교육의식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 접근에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성적을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학교 교육이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거나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자녀의 학원과외학습을 요구하는 잠재적인 필요로 작용하고 있다. 90%이상의 학부모들이 학원과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기본적인 학습능력 배양, 잠재 능력과 특기 신장, 정서 함양 등과 같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 제주도 국민학생 전체의 83.3%가 주산, 속셈, 피아노, 미술 등의 학원과외학습을 받고 있으며, 국민학교 1학년 이전에 81.7%가 예능계열 중심의 학원과외학습을 시작하여 현재 1인당 평균 1.6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원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계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은 일반화, 보편화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이제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은 '예', '아니오' 택일적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의 관점에서 보다 교육적인 접근에 따른 대안들을 탐색하여 이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며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계층적 위화감 또는 교육적인 소모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교육적인 발전이라는 전향적 시각만이 국민학생의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원과외학습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성적 향상과 같은 단순한 도움만이 아니라 자신감, 잠재능

력의 개발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반응하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경비 혹은 학습시간의 부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의 부족한 면을 보완·보충해야 한다고 대부분이 응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학원과의 학습은 제 2의 학교교육으로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마디로 교육적인 면에서 학원과의 학습에 접근했다. 이러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학원과의 학습은 학교교육과 보완적, 긍정적인 관계에서 모색하고 평가되어야 함을 요청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의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와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자의 능력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으로 너무 미흡하다고 자성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권이종(1991), “학원교육의 정책방향”, [우리나라 학원교육의 개혁방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 김도수(1994), [사회교육학], 교육과학사.
- 김수일(1991), “학원위상 정립의 과제”, [우리나라 학원교육의 개혁방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 김신일(1991),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김영일(1987), [사회교육학개론], 문음사.
- 김영일 외(1982), [학원교육과 사회교육], 사단법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 김종서(1991), “사회교육과 사설학원”, [우리나라 학원교육의 개혁방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 남정걸 외(1993), [국민학생의 학원수강 및 과외교습에 대한 교사·학부모들의 인식조사], 한국학원교육총연합회.
- 박용현 외(1981),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출판사.
- 윤선호(1991), [학원교육의 이론과 실제], 자문사.
- 이석재(1990), [교육사회학 개론], 교육과학사.
- 장진호(1983), [교육과 사회], 대은출판사.
- 정우현(1993), [사회교육론], 교육과학사.
- 한준상(1988),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청아출판사.
- 황종건(1983), [한국의 사회교육], 교육과학사.
- 곽희선(1992), “초등학교 아동의 학원수강과 학업성취 및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두전(1993), 입시학원의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철 외(1981),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과외해소대책”, 한국교육개발

원연구보고 제 132집.

- 김영화 외(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연구보고 RR 93-21, 한국교육개발원.
- 배천웅 외(1986),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 연구보고 RR 86-15, 한국교육개발원.
- 신세호 외(1991), “과외수업 실태분석연구”, 연구보고 RR 86-15, 한국교육개발원.
- 이장식(1992), “학원교육에 대한 국민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종현(1980), “미술학원, 음악학원의 현황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춘석(1987),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적 관심도 분석”, 석사학위청구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문선(1988), “국민학교 아동의 학원수강과 학업성취 및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Dave, R. H.(1973), *Lifelong Education And School Curriculum*,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 Dore, R. P. (1976), *The Diploma Disease :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 Grattan, C. H.(1950), *American Ideas about Adult Education*, New york: Colombia Univ.
- Havighurst, R. J.(1980),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Y: David Mckay.
- Hurn, C. (1978),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Schooling*, Boston:Allyn and Bacon.
- Jarvis, P.(198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of Georgia.
- Knapper, C.(1985),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London:Croom Helm.

- 
- Knowles, M. S.(197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Andragogy Versus Pedagogy*, NY:Association Press.
- Knox, A. B.(1979), *Enhancing Proficiencies of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cation.
- Kreitlow, Burton W. et al.(1981), *Examining Controversies in Adult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 Spring, J.(1986), *The American School, 1642-1985*, New York : Longman.
- Titus, C.(ed.)(1989),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 An International Handbook*, Oxford:Pergamon Press.
- Wain. K.(1987), *Philosophy of Lifelong Education*, London:Croom Helm.



---

<Abstract>

A Study on the Parents' Understanding of the School

Children's Out-of-School Studies in the Private institutes

Kim Kyung-sik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Soon-Hyung

This study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arents' thought of education and their perception of school education play a great role in the children's out-of-school studies. Also, to know the realities of the children's studies in the private institutes and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m have the important meaning, in the view that the school children's extracurricular studies help them not only to supplement their poor schoolwork, but also to develop their artistic and physical abilit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upplementary relation between school education and the institute education, which surely gives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information for the out-of-school studie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aims, this study surveys and investigates thei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ducation, the problems of school education, and the realities and the effects of out-of-school education by the private institute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November, 1994.

1. How do the parents feel about their children's education ?
2. What do they think are the problems of school education for children ?
3. How are the school children's out-of-school studies in the private institutes done and what are the problems of them?
4. What do the parents understand the effects and the problems of out-of school education by the private institutes?

The papers for materials are sent to the 930 parents who live city, town and village in Cheju. The 882 parents of them take part in this study. The survey period is from May 1 to May 20, 1994.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are derived from each responsive frequency and percentage by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analyz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is study, with regard to the children's education by the private institutes, the parents think of education as a way of rather the uprise of social position and economic wealth than the perfection of self and the growth of the whole man. Meanwhile, though the parents emphasize the children's growth of the schoolwork, believing that only the professionals who graduate college can adjust themselves to the future society, they think that the parents should help the children's growth of moral. This must be the parents' inconsistent response to the question.

Second, the parents are much interested in the children's scholastic attainments, and most of them are proud that their children's attainments are above the average. They want their children to achieve good attainments, and consider the attainments to be the means of entering college and getting job. Even though they think school children's education is to be faithful to produce equally the harmonious children of intelligence, virtue and body, they hope the contents of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t suggests to them that their children's out-of-school studies should be required. For instance, more

---

than 90 percent of them believe the children's studies in the private institutes are helpful to increase learning ability, individual talent and sentiments.

Third, about 83 percent of the school children in Cheju have experienced out-of-school studies including abacus calculation, mental arithmetic, piano, fine arts. Before entering to school, approximately 81.7 percent of the children study in the private institutes. And, it is estimated that a child participates in 1.6 classes in the private institutes. The parents say the expense of extracurricular studies compels economic burden to them, but that burden, they also admit, is not so important as the children's education. As a result, the children's out-of-school studies are thought to be generalized and universal.

Fourth, the children's out-of-school education is not selective problem of 'positive' or 'negative' any more, this study says. This study only needs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 by finding out the problems and by making an alternative measure. This study denies the eyes against the out-of-school studies that are consist of the parents' burden of expense, the conflicts among the different social positions and the consumption of educative energy. The out-of-school studies gives the children not only rise of the scholastic attainments but also their own confidence on studies, the development of their potential abilities. The out-of-school education in the private institutes will have to be discussed as a second education.

Fift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ildren's out-of-school in the private institutes in the standpoint of educational view. The education in the private institutes is to be have the positive meaning when supplementing school education.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자녀들의 학력향상과 잠재능력을 조기에 계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 학부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지는 국민학교 아동의 학원과외에 대한 학부모 교육의식을 조사하여 건전한 학원과외수업 풍토 조성과 학원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 하나 하나는 모두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됨과 아울러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5.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연구실 드림

※ 참고사항(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소재지 :  ① 시,  ② 읍, 면소재지,  ③ 농어촌
-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 3) 성별 :  ① 남,  ② 여
- 4) 학부모의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공무원 및 군인	<input type="checkbox"/> ② 회사원
<input type="checkbox"/> ③ 농·림·축산·어업 종사	<input type="checkbox"/> ④ 도·소매업상인, 요식·숙박업
<input type="checkbox"/> ⑤ 생산직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⑥ 서비스업종사자(운전사, 이·미용업)
<input type="checkbox"/> ⑦ 초·중등학교 교원	<input type="checkbox"/> ⑧ 의사, 약사, 한의사
<input type="checkbox"/> ⑨ 변호사, 교수, 건축설계사, 회계사	<input type="checkbox"/> ⑩ 중소기업 경영자
- 5) 학부모의 학력
 

부	구	분	모
<input type="checkbox"/> ①		대학이상 졸업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②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⑥
<input type="checkbox"/> ③		중 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④		국민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⑧
- 6) 월평균 가계소득은?(부부 소득 합산하여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소득을 예상하여 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200만원 이상	

## 응답요령

1. 다음 설문지를 읽고 평소 선생님께서 느끼신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_\_\_란에 ✓ 표해 주십시오.
2. 만약 제시된 답지 중 해당하는 것이 없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란에 간단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자녀는 장차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_\_\_ 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_\_\_ ②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_\_\_ ③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_\_\_ ④ 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2) 다음은 교육받은 한국인으로 미래사회에 기대하는 인간상입니다. 우리 학교교육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_\_\_ ① 몸과 마음이 튼튼한 사람(건강한 사람)  
\_\_\_ ② 개성있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자주적인 사람)  
\_\_\_ ③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창의적인 사람)  
\_\_\_ ④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착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도덕적인 사람)

3) 자녀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합니까?

- \_\_\_ ① 공부 열심히하여 학업성적이 올라가도록 보살펴주는 일  
\_\_\_ ② 행실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도록 이끌어 주는 일  
\_\_\_ ③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해 주는 일  
\_\_\_ ④ 여러가지 재주를 지니도록 도와주는 일

4) 자녀가 성공하려면 어느 요인이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력      \_\_\_ ② 가정환경      \_\_\_ ③ 출신지 배경      \_\_\_ ④ 특정대학 졸업

5) 교육은 개인이 사회적 지위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      \_\_\_ ② 많은 영향을 준다.  
\_\_\_ ③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_\_\_ ④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 6) 교육은 개인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_\_\_ ①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      \_\_\_ ② 많은 영향을 준다.  
 \_\_\_ ③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_\_\_ ④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 7) 자녀의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_\_\_ ① 우 수      \_\_\_ ② 보 통      \_\_\_ ③ 보통 이하
- 8)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하여 과민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_\_\_ 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므로  
 \_\_\_ ②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_\_\_ ③ 공부 잘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_\_\_ ④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로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 9) 자녀의 특기 신장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_\_\_ ① 소질과 적성      \_\_\_ ② 담임교사의 지도  
 \_\_\_ ③ 학부모의 교육열      \_\_\_ ④ 학원과외교육
- 10) 자녀의 학력을 어느 수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까?  
 \_\_\_ ① 중학교      \_\_\_ ② 고등학교      \_\_\_ ③ 대학교      \_\_\_ ④ 대학원 이상
- 11) 학력이 계속 높아져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_\_\_ ① 직업 선택이 유리하므로  
 \_\_\_ ②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므로  
 \_\_\_ ③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므로  
 \_\_\_ ④ 지식이 날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므로
- 12) 자녀의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_\_\_ 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  
 \_\_\_ ②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_\_\_ ③ 상급학교 진학하여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  
 \_\_\_ ④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13)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학교교육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_\_\_ ① 예      \_\_\_ ② 모르겠다      \_\_\_ ③ 아니오 ('15번'으로 가십시오.)

14) 학교교육을 개선해야 된다면 불만족스러운 분야는 무엇입니까?

\_\_\_ ① 교과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_\_\_ ② 아동 개개인의 학습능력, 흥미, 적성 등에 맞는 학습지도가 미흡하다.  
\_\_\_ ③ 소질 및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특별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_\_\_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15) 자녀가 현재 학원과외를 받고 있습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응답하신 분은 '33번'으로 가십시오.)

16) 지금 자녀가 다니는 학원과외를 모두 표시하십시오.

\_\_\_ ① 속셈      \_\_\_ ② 주산 및 암산      \_\_\_ ③ 컴퓨터      \_\_\_ ④ 미술  
\_\_\_ ⑤ 서예      \_\_\_ ⑥ 음악      \_\_\_ ⑦ 피아노      \_\_\_ ⑧ 가야금  
\_\_\_ ⑨ 영어      \_\_\_ ⑩ 태권도      \_\_\_ ⑪ 쿵후      \_\_\_ ⑫ 합기도  
\_\_\_ ⑬ 유도      \_\_\_ ⑭ 무용      \_\_\_ ⑮ 속독      \_\_\_ ⑯ 한문  
\_\_\_ ⑰ 웅변      \_\_\_ ⑱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17) 자녀에게 최초로 학원과외를 시켰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 ① 유치원 입원 전후      \_\_\_ ② 국민학교 1학년 때  
\_\_\_ ③ 국민학교 2학년 때      \_\_\_ ④ 국민학교 3학년 이후

18) 자녀가 최초로 수강한 학원 계열은 어느 것입니까?

\_\_\_ ① 음악 계열      \_\_\_ ② 미술 계열      \_\_\_ ③ 체육 계열  
\_\_\_ ④ 컴퓨터      \_\_\_ ⑤ 외국어 계열      \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19) 지금까지 자녀가 수강하고 있는 학원과외 선택은 누가 하였습니까?

\_\_\_ ① 자녀 스스로      \_\_\_ ②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_\_\_ ③ 부모님과 자녀의 협의에 의해서      \_\_\_ ④ 타인의 권유





32) 어떤 학원과의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_\_\_ ① 학원교육은 학교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_\_\_ ② 학교교육은 학원교육의 부족한 것을 보완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_\_\_ ③ 학원교육과 학교교육은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3) 현재는 학원과의를 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자녀가 원한다면 앞으로 학원과의를 시키겠습니까? ('15'번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바랍니다.)

\_\_\_ ① 예                      \_\_\_ ② 모르겠다.                      \_\_\_ ③ 아니오.

